

第18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18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86. 4. 9~11. TOKYO, JAPAN

報 告 書

韓 日 經 濟 協 會

〈第 18 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經團連會館 國際會議場・日本國東京)



▲ 開會式에서 人事하는 朴泰俊 韓國代表團 團長



◀ 韓國 代表團



日本 代表團 ▶



◀ 兩側共同主催 리셉션에
來賓으로 參席한 李奎浩
駐日大使를 맞는 朴泰俊
・杉浦敏介 兩側代表團長

兩國財界重鎮들의 交歡 ▶



◀ 兩側代表團을 위한
리셉션 光景

目 次

1. 會議日程	7
2. 兩側團長人事	9
가) 韓國側	9
나) 日本側	14
3. 祝 辭	18
가) 李 奎 浩 駐日本國大韓民國全權特命大使	18
나) 浦野悠興 日本國外務省政務次官	21
다) 黑田 眞 日本國通商産業省通商政策局長	23
4. 經過報告	25
5. 會議議題	27
6. 兩側代表團名單	29
가) 韓國側	29
나) 日本側	34
7. 基調演說	40
가) 韓國側：韓國의 市場開放政策과 韓日交易増大方案	40
서울大學校教授 朴宇熙	
나) 日本側：日本の 對外政策基調와 日韓經濟關係	54
日本貿易振興會理事長 赤澤瑱一	

8. 韓國의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說明	62
經濟企劃院對外經濟調整室調整4擔當官 金湧	
가) 上記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問(1)	74
日本長期信用銀行常務取締役 竹內 宏	
나) 質問(1)에 對한 答辯	75
經濟企劃院對外經濟調整室調整4擔當官 金湧	
다) 上記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問(2)	76
經濟團體連合會常務理事 三好正也	
라) 質問(2)에 對한 答辯	77
經濟企劃院對外經濟調整室調整4擔當官 金湧	
마) 上記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問(3)	79
日本船主協會專務理事 三上良造	
바) 質問(3)에 對한 答辯	80
經濟企劃院對外經濟調整室調整4擔當官 金湧	
사) 上記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問(4)	81
日本輸出入銀行理事 中山迪夫	
아) 質問(4)에 對한 答辯	82
經濟企劃院對外經濟調整室調整4擔當官 金湧	
9. 各專門委員會 報告事項	83
가) 第13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83
나) 第11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86

다) 第 6 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90
라) 第 4 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92
10. 經濟協力	95
가) 第 6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95
① 日本側提案：第 6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調查團派遣	95
日商岩井(株)會長 植田三男	
② 韓國側 答辯	98
全國經濟人聯合會常務 曹圭河	
나) 投資協力	99
① 日本側報告：訪韓國投資環境調查團活動	99
山一證券(株)會長 植谷久三	
② 韓國側提案：對日投資誘致團派遣協力	101
韓國貿易協會常務 李相高	
③ 日本側 答辯	103
日商岩井(株)會長 植田三男	
11. 技術協力	104
가) ① 日本側提案：部品開發協力및선의 交流	104
川崎重工業(株)會長 梅田善司	
② 韓國側 答辯	105
韓國火藥工業常務 金正	

나) ①韓國側提案：技術移轉斡旋窓口의 活性化	107
巨洋商事(株)社長 李 尙 秀	
(2)日本側 答辯	108
川崎重工業(株)會長 梅田善司	
다) ①韓國側提案：技能工研修擴大協力	109
中小企業振興工團 東京事務所長 尹東善	
②日本側 答辯	114
川崎重工業(株)會長 梅田善司	
12. 貿易增進	117
가) 韓國側提案：訪日輸出促進團派遣協力	117
(株)元仲實業社長 朴 魯 聖	
나) 日本側 答辯(I)	120
丸紅(株)取締役 山田 實	
다) 日本側 答辯(II)	122
日本貿易振興會 理事 村岡邦男	
13. 交流事業	124
가) 青少年交流	124
① 韓國側提案：青少年交流의 活性化	124
韓日經濟協會常勤副會長 周 永 爽	
② 日本側 答辯	126
山一證券(株)會長 植谷久三	
③ 日本側 答辯에 對한 韓國側 코멘트	127
韓日經濟協會常勤副會長 周 永 爽	

나) '88 서울올림픽 協力	128
① 日本側提案	128
山一證券(株)會長	植谷久三
② 韓國側 答辯	129
韓日經濟協會常勤副會長	周 永 爽
14. 共同聲明	130
15. 閉 會 辭	135
가) 韓國側	135
나) 日本側	137

會 議 日 程

4 月 9 日 (水)

10:00 ~ 12:20	金浦 - 成田 (KE704)
12:50 ~ 14:00	成田 - 캐피톨도큐호텔 (專贊버스)
14:00 ~ 14:30	호텔 체크인
15:00 ~ 15:30	호텔 - 經團連
16:00 ~ 18:00	開 會 (經團連 國際會議場) 兩側團長人事 祝 辭 兩側基調演說
18:00 ~ 19:30	리셉션 (韓日共同主催) 經團連 다이아몬드홀
19:30 ~ 20:00	經團連 - 호텔 (專贊버스)

4 月 10 日 (木)

07:30 ~ 08:30	朝餐會 (全團員) 캐피톨도큐호텔 白眞珠홀
09:30 ~ 10:00	호텔 - 經團連
10:00 ~ 12:00	本會議 (經團連 國際會議場)
12:00 ~ 13:30	午餐會 (日本側 主催) 經團連 다이아몬드홀

14:00 ~ 17:00 本會議
17:00 ~ 17:30 經團連 - 호텔

4月11日(金)

07:30 ~ 08:30 朝食會(全團員)
 캐피틀도쿄호텔 白眞珠홀
09:30 ~ 10:00 호텔 - 經團連
10:00 ~ 11:00 共同聲明 採擇(經團連 國際會議場)
11:00 閉 會
11:00 ~ 12:00 會議場 - 호텔
12:30 ~ 14:00 호텔 - 成田
15:25 ~ 17:35 成田 - 金浦(KE703)

※ 07:30 ~ 09:00 兩側顧問, 團長團, 分科委員會委員長團 朝食會
(共同聲明 採擇) 캐피틀도쿄호텔內

韓 國 側 團 長 人 事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朴泰俊

尊敬하는 杉浦敏介 團長，日本側 顧問과 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먼저 貴 日韓經濟協會가 오랜 宿願이던 社團法人化를 이루시고, 新會長團을 구성하여 새롭게 出發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第 18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開催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한 本人을 비롯한 우리 韓國代表團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분에게 韓國代表團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나시피 1965 年 韓日國交가 正常화된 이후 두나라 사이에는 술한 迂餘曲折도 있었읍니다만, 특히 지난 '83 年과 '84 年の 兩國 頂上의 交叉訪問을 契機로 이제 韓日間에는 어느때보다도 두터운 友好와 協力の 雰圍氣가 성숙되어 있는 段階라 하겠읍니다.

오늘의 世界經濟는 原油價의 下落과 함께 수년간 계속된 不況의 늪에서 시시히 벗어나는 희망적인 兆朕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韓國經濟 또한 油價下落과 國際金利引下 및 円高현상등 國際經濟與件의 好轉에 힘입어 새로운 跳躍의 轉機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先進諸國의 保護貿易強化로 비롯된 自由友邦國家間의 尖銳한 經濟的 對立 그리고 油價體系의 급격한 崩壞와 國際通貨體制의

不安定등은 모처럼 회복된 世界景氣의 回復趨勢를 위협하는 不安要因으로 尙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安定을 維持하는 軸으로서 굳게 결속되어야 할 美國과 日本, 그리고 韓國사이의 貿易不均衡問題와 관련된 최근의 미묘한 摩擦은 비단 經濟面에서 뿐만 아니라 이 地域의 安定 그 自體를 不安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定과 均衡있는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로가 한결음씩 양보하여 友邦國家間の 미묘한 利害關係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經濟人에게 부여된 使命이라 하겠읍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무릇 國家間에 있어 民間經濟團體를 통한 協力이라고 하는 것이 相互親善의 범주를 넘어서서 具體的인 事業의 수행에까지 이르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韓日間 民間經濟協力の 窓口로서 여러가지 內實있는 事業을 수행하여, 兩國關係의 發展과 相互利益의 增進에 크게 寄與해 왔다는 사실에 本人은 커다란 自負心을 느끼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여러분의 노고에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兩國關係가 成年을 맞은 이 時點에서 韓日經濟協力の 過程을 돌아볼 때, 물론 不得已했던 여건도 많이 있기는 하였지만, 慢性的인 貿易不均衡과 韓國經濟의 對日依存度 深化라는 側面을 부각

시키는 一部の 批判도 있다고 하는 事實만은 우리 모두가 유념해
모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人은 우리 大韓民國에서 第5共和國 政府가 새
롭게 出帆하였던 1981年の 第13回 合同會議席上에서 ‘새로운 次
元에서의 韓日間 民間經濟協力關係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兩國間 經
濟協力の 質的強化가 緊要하다’고 強調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
기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의 兩國間 協力方式이라 할 수 있었던 企業間的 垂直的
協力關係를 단순히 物量的으로 擴大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水平
的・補完的 協力關係로 改善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韓日間に 懸案이 되고 있는 貿易不均衡問題도 기존의 韓日間 協
力方式에 內在된 構造的인 問題點과 無관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면,
成熟된 同伴者的 友好協力關係를 구축하려는 時代的인 要請에 부응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問題點을 改善하는 方向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機會있을 때마다 兩國間的 貿易을 長期的인 擴大均衡의 方
向으로 發展시켜야 하며 尖端技術移轉問題도 企業單位의 진지한 相
互協力を 통하여 實質的인 移轉을 이루어 가자는 쪽으로 意見を 같
이하여 왔는 바, 우리 兩國經濟人的 노력에 의해 지금까지 그러한
方向으로 상당한 進展을 거듭해 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韓日間の 貿易不均衡을 兩國의 産業構造나 經濟發展段階의 차이에
서 비롯되는 構造的 不均衡으로서 이를 不可避한 現象으로 당연히

하는 見解도 많지만, 同伴者的 協力關係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 次元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方向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方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이 자리를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本人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兩國間 經濟協力の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 今後의 韓日兩國의 經濟協力は 兩國間의 貿易을 長期的인 擴大均衡의 方向으로 發展시켜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兩國의 産業構造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構造的 不均衡을 해소시키는 方向에 主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근래의 國際的 貿易紛爭 내지 經濟的 摩擦도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결국은 한 나라가 계속하여 經濟的 優位를 獨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狀況을 解消하려는 노력은 상호간에 꾸준히 繼續되어야 하며, 그 가장 가까운 方法은 兩國間의 技術力の 隔差를 줄여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서로의 장점을 活用하는 方向에서 高度技術産業分野의 合作投資를 확대해 가는 것도 훌륭한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韓國의 立場에서 보면 現在 推進하고 있는 産業構造 高度化의 중요한 契機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계속적인 摩擦이 예상되는 世界貿易環境의 醇化에도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國家와 國家間的 次元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當該 企業사이의 協議를 통한, 相互間에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方向에서의 努力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本人의 생각입니다.

本人은 이에 대한 여러분의 前向的인 理解와 함께 日本社會속에 그러한 協力の 雰圍氣를 조성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親愛하는 日本代表團 여러분!

지금 우리 韓國은 1988 年の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 대회를 통하여 뻗어가는 大韓民國의 國力을 全世界에 과시하는 동시에, 이大會가 명실공히 모든 人類의 平和와 和善의 大祭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準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보다 24년 앞서 올림픽開催의 經驗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위해 여러분의 經驗을 나누어주시고, 아낌없는 支援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3日間 繼續될 第18回 合同委員會의 會議를 통하여 兩國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에 대한 격의없는 對話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어느 會議때 보다도 더욱 알찬 成果를 거두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本人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6 年 4 月 9 日

日 本 側 團 長 人 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杉浦敏介

방금 紹介를 받은 杉浦입니다.

오늘 第 18 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開催에 즈음하여 李奎浩 大韓民國駐日大使閣下를 비롯한 來賓과 顧問 여러분께서 臨席해 주신 가운데 日本側를 代表하여 人事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朴泰俊團長님을 비롯한 韓國側代表團 여러분께서는 金斗煥大統領閣下の 歐洲巡訪日程과 겹쳐져 여러모로 多忙하신 時期임에도 不拘하고 이 合同會議를 위해 參席해 주신데 對하여 깊이 感謝드리는 동시에 眞心으로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日韓經濟關係는 兩國頂上の 相互公式訪問과 國交回復 20 周年을 契機로 「日韓新時代」를 맞고 있는 터 인니다만, 兩國關係가 만드시 平坦하지만은 않았던 가운데 過去 17 回 단한번도 中斷됨이 없이 오늘까지 이 合同會議를 거듭해 오신 兩國民間經濟界의 여러 先輩님들의 熱意와 努力에 세삼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合同會議는 저희 日韓經濟協會로서는 지난 1월에 社團法人化를 實現한 뒤 처음 맞는 合同會議라는 點에서 格別한 感慨가 깊습니다만 오랜 歲月에 걸친 日韓經濟關係의 歷史 가운데서도 하나의 마디로서 重要的 意味를 갖게 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왜냐하면 韓國經濟의 基盤은 各界 여러분들의 努力에 의해 着實

히 굳혀져 가고 있으며 또 經濟의 퍼포먼스도 最近에는 石油價格 및 換時勢등의 要因도 있어서 顯著하게 改善되고 있는바 이러한 事實들은 兩國經濟關係와 經濟協力の 本質적인 姿勢에 새로운 展開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日韓貿易逆調問題, 技術移轉問題등 重要과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폭넓은 對應이 검토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실감입니다.

내일 全體會議에서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韓國經濟는 「第2의 經濟跳躍」의 실현을 目標로 삼고 내년부터 드디어 第6次5個年計劃의 施行段階에 들어 가게 되는바, 우리들 民間經濟界로서도 同計劃의 重點施策에 맞춰서 投資・技術 또는 貿易促進과 같은 분야에서 건설적인 相互協力 方法을 追求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投資・技術交流에 관하여는 同計劃에서 研究開發水準의 向上과 中小企業・部品産業등의 底邊基盤의 정비에 重點이 두어지고 있으므로 특히 그러한 분야에서의 投資・技術交流가 확대될 수 있는 環境을 整備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部品の 共同開發」이 議題로서 다뤄지게 된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貿易擴大에 관하여는 日韓・韓日 兩市場協議會를 중심으로 多角的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만, 貿易量의 확대와 더불어 人材養成이나 마케팅의 向上과 같은 면에서도 상호 협력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日本貿易振興會를 비롯하여 關係機關이 韓國의 商

事員研修나 日本의 流通構造・慣習의 研究 등에 事業活動을 넓히려 하고있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第6次5個年計劃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韓國經濟가 앞으로 보다 効率的이고 均衡있는 발전을 이룩해 가려면 流通・서비스産業의 확대와 高度化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이 분야에서 投資・技術交流의 擴大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兩國의 긴밀한 經濟關係를 구축해 가는데는 무엇보다도 相互信賴關係가 기반이 되므로 지금까지 여러 선배분들께서 키워 오신 서로의 信賴關係를 한층 鞏固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人的交流의 기회를 넓혀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日韓兩國에게 기대되는 役割은 매우 큰 것입니다.

「漢江의 奇蹟」을 이룩한 韓國經濟는 서울올림픽을 跳躍台로 해서 「第2의 經濟跳躍」을 실현하고 이에 따라 兩國關係가 緊密度를 더욱 더 深化시켜 나가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더우기 그것이 아시아 INICs, 아세안諸國등의 발전을 促進하며 아시아・太平洋地域時代를 여는 原動力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立脚해서 이번 第18回合同會議의 자리에서 兩國經濟人이 新時代에 상응하는 協力關係의 存在 方法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이번 會議가 日韓經濟關係의 새로운 展開를 향한 轉機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兩國代表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趣旨를 理解하시시 기탄없는 의
견을 交換하심으로써 이 會議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가)

大韓民國駐日本國全權特命大使
李奎浩

尊敬하는 杉浦日韓經濟協會會長, 朴泰俊韓日經濟協會會長, 稻山經團連會長, 五島商工會議所會頭, 그리고 韓日兩國의 産業經濟界에서 活躍하고 계시는 兩側代表團 여러분!

오늘 第 18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開會式에 參席해서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韓日間の 民間經濟交流에 있어서 가장 重要な 主軸을 이루고 있는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도 於焉 18年째를 맞았습니다.

兩國間の 經濟分野에서 이처럼 傳統的인 協力關係를 훌륭히 構築하신데 對하여 兩國財界人 여러분의 그동안의 勞苦에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韓日兩國은 戰後 約 40 年間の 期間을 通해 서로가 놓여있는 特殊한 環境속에서 메로는 難關을 훌륭히 克服하고 메로는 環境을 有効롭게 活用하면서 世界歷史上 類例가 없을 程度로 兩國이 나름대로 눈부신 發展을 이룩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韓國이 韓國動亂의 廢墟속에서 再生하기 위해 經濟開發計劃을 本格的으로 推進하여 왔던 지난 25 年間, 韓日兩國間の 經濟關係는 큰 發展을 持續해 왔으며, 貿易・資本・投資・技術協力を 包含한 모든 經濟分野에서의 兩國間 協力關係는 韓國의 經濟發展에도 크게 貢獻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兩國間의 緊密한 經濟協力關係를 構築함에 있어서 本合同經濟委員會는 下部組織인 貿易擴大均衡委員會,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그리고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등 各專門委員會의 活動을 통해 積極的인 役割을 擔當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全體的으로 緊密한 協力關係가 維持되고 큰 成果를 거두어 왔읍니다만, 兩國間에는 아직도 推進해야 할 問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機會에 平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于先, 첫째로 韓日兩國間의 均衡있는 貿易의 擴大問題 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韓國의 貿易은 日本과의 貿易을 除外하면 이미 數年前부터 均衡을 回復하여 黑字를 示顯하고 있습니다만, 日本과의 貿易逆調 때문에 全體貿易까지도 赤字를 免치 못하는 實情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現狀이 國際收支改善을 最優先政策目標로 삼고 있는 韓國政府의 經濟運營에 가장 큰 負擔을 주고 있음은 더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는 물론 第1次的으로는 韓國의 企業이나 政府가 먼저 온갖 努力을 기울여야만 하고 그 責任이 韓國側에 있다고 생각되나만, 그와같은 韓國側의 努力에 對해 日本財界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理解와 協력이 무엇보다도 要請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韓日間 國際協業의 促進問題 입니다.

韓國과 日本은 옛부터 서로가 가지고 있는 文化, 學問, 技術을 서로 相對에게 傳援하고 傳援받는 歷史的인 經驗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歷史를 통해서 體得해온 이 相互間 協業의 智慧는, 오늘날과

같은 變化無雙한 國際經濟環境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共同
繁榮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浪費가 적고
効率的인 方法인가를 스스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先進型産業經濟를 먼저 達成한 貴國은 投資의 餘力을 새로운 產
業과 新技術을 開發하는데 投入함으로써 投資의 効率을 追求해야
할 것이며, 소위 傳統産業은 海外投資 또는 技術傳授의 形態로 韓
國에 移轉함으로써 韓國의 輸出과 産業發展에 參與한다면 이는 結
果적으로 韓國의 對日輸入能力도 높이게 되므로 그야말로 長期的인
觀點에서 兩國 모두에게 利益을 가져다 주는 가장 좋은 方法이라
고 생각합니다.

韓日兩國間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相互協力的인 協業과 技術移轉의
促進은 兩國間的 相互補完的인 經濟關係의 內容을 알찬 것으로 만
드는 것이므로 兩國關係의 將來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樣相을 創出
해 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會議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兩國間 貿易擴大를 위한 諸
般方案과 더불어 對韓國 投資促進, 部品開發協力, 技術移轉窓口的 活
性化 및 技能工研修問題 등에 關해서 協議를 進行시킨다고 듣고 있
읍니다만, 모쪼록 活潑하고도 眞摯한 意見交換을 통해 兩國經濟關係
發展에 生産的인 寄與를 하기 위해 努力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韓國이 지금 當面하고 있는 今年度の 아시안게임, '88년의
서울올림픽이라는 國際的인 큰 行사가 成功裡에 遂行될 수 있도록
日本의 經濟界・財界의 重鎮이신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協력과 支援
을 付託드리면서 簡單합니다만 이것으로 祝辭에 代身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祝 辭 (나)

外務政務次官
浦 野 傑 興

오늘 第 18 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의 開會에 즈음하여 祝辭를 드리는 機會를 얻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이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는 日韓國交正常化直後에 設立되어 이번으로 第 18 回를 맞습니다만 그동안 日韓兩國의 經濟界에 있어서 指導的인 役割을 遂行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率直하고도 有益한 對話를 나누어 오신 것은 日韓兩國의 相互理解와 友好的 促進 및 兩國經濟關係의 發展에 多大한 貢獻을 하신 것으로 높이 評價되고 있는바 이자리를 빌어 兩國關係者 여러분께 深甚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現在の 日韓兩國關係는 中曾根總理와 全斗煥大統領의 相互 訪問에 의해 새로운 時代에 접어들었고 昨年에는 國交正常代 20 周年을 맞는 등 보다 緊密하고도 鞏固한것이 되고 있습니다. 또 昨年の IMF・IBRD 總會, 今年가을로 豫定되고 있는 아시아競技大會, 그리고 1988 年の 서울올림픽등 歴史的인 大事業의 開催가 連續되는등 昨今の 韓國의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貢獻에는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日韓兩國은 非單 兩國의 利益뿐만 아니라 世界平和와 安定에 寄與하기 위해서도 加一層 協力을 深化시켜 나갈 必要가 있습니다.

經濟에 눈을 돌리면 日韓兩國은 第 2 次世界大戰後의 自由貿易體制

下에서 世界에 類例가 없는 高度成長을 이룩해 온 터임니다만 앞으로 이 自由貿易體制를 維持하고 世界의 인플레이 없는 持續的 成長을 指向하기 위해서는 日韓兩國이 그 經濟力에 相應하는 國際的인 責務를 完遂함과 아울러 新라운드등에서 一致協力하여 緊密한 紐帶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必要합니다.

이와 같이 日韓新時代에 접어들면서 兩國間的 友好親善關係는 한층 順調롭게 進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發展해 나갈 것으로 確信하고 있음니다만, 한편 貿易不均衡, 投資環境改善, 産業技術協力問題 등 兩國間的 經濟關係를 圍繞한 諸般 懸案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그것들은 또한 複雜多岐한 것으로서 短期間에는 解決이 困難한 것도 包含되어 있는 것은 否認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兩國經濟人 여러분이나 우리들 政府關係者가 兩國間的 全般的인 友好關係를 背景삼아 世界的인 視野를 가지고 眞摯하게 對話를 나눈다면 저절로 모든 問題點도 解決되는 方向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이번 第18回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에 參席하신 여러분이 그와 같은 見地에서 有益한 對話를 나누시고 또 이 會合이 兩國經濟人 相互間的 信賴와 友情을 더욱더 深化시켜 나가실 것을 祈願하면서 簡單함니다만 이것으로 人事말씀을 마치겠습니다.

祝 辭 (다)

通產省通商政策局長

黑 田 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는 지난 1969 年에 第 1 回會議를 開催한 後 이번으로 벌써 第 18 回를 맞습니다.

本委員會가 兩國을 代表하는 經濟人間的 相互交流, 相互理解 및 兩國間에서 일어난 經濟上의 모든 問題를 客觀的으로 解決하는데 遂行한 役割은 多大하였다고 認識되며, 이點, 兩國關係者들의 이제까지의 努力에 敬意를 表하고자 합니다.

現在, 韓國을 둘러싼 經濟環境을 史上空前이라 할수 있을 程度로 最良의 狀況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소위 3 低時代의 到來, 즉 円貨의 強勢・원貨의 弱勢는 輸出增加에, 原油價下落은 貴重한 外債節約에, 金利低下는 外債縮小에 도움이 되는등 韓國에게 있어서는 經濟成長의 制約條件이 一齊히 풀림으로써 더한층 飛躍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加工輸出貿易에 立脚한 韓國이 飛躍的인 成長을 이룩하면 世界到處에서 日本産業과의 競合이 激化될 것인 바, 그 實例로 自動車, 電子레인지, VTR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兩國産業이 서로 切磋琢磨하는 것은 自由貿易의 思考方式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日本企業에게 있어서도 世界的인 視野에 立脚한 21世紀의 經營戰略을 不可不 構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이것을 게을리한 企業은 自然淘汰되는 運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한 熱意와 行動만이 日本經

濟構告全體를 새로운 時代에 對應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같은 重要的 選擇肢로서 日韓兩國의 產業이 世界的인 視野에 立脚해서 많은 分野에서 分業關係를 樹立해가고 있음은 每日每日의 新聞에 報道되고 있는바와 같습니다. 이에 對해서도 서로의 長點을 最大限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兩國經濟人들이 長期的인 視野와 合理的인 判斷이라는 選擇肢를 찾은 結果라고 認識됩니다.

日韓兩國間的 交流도 이미 20年以上을 經過하고 있으며, 特히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感傷을 排除한 冷靜하고도 合理的인 經濟關係가 이미 構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關係가 經濟뿐만 아니라 더많은 分野에서 構築될 때 日韓兩國은 좋은 同伴者로서 世界社會속에서 確固한 地位를 確立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日韓間的 經濟關係는 多樣化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 크나큰 歷史的인 潮流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段階에서는 政府가 遂行할 수 있는 役割은 環境의 改善이라는 限定된 것이며, 따라서 民間의 交流야말로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도 本委員會의 會議가 알찬 것이 되도록 마음으로 부터 빌어마지 않는바입니다.

感謝합니다.

經 過 報 告

昨年 4 月 韓國 慶州에서 開催된 第 17 回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 있어서 합의된 사항의 오늘까지의 推進狀況과 그 동안 兩側 委員會에 있어서의 活動상황에 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各委員會의 活動상황부터 報告하겠습니다.

第 13 回 日韓・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는 今年 2 月 日本의 熱海에서, 第 11 回日韓・韓日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6 月 韓國의 雪岳山에서, 第 6 回日韓・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11 月 서울에서, 第 4 回日韓・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今年 3 月 韓國의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이 상의 4 專門委員會의 활동에 관한 詳細한 내용은 내일 全體會議에서 各委員會의 日本側委員長이 報告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第 17 回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의 合意事項 등의 폴로우업 概要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同會議에 있어서 韓國側으로 부터 要請된 日本으로 부터의 韓國의 投資環境에 관한 調査團 파견에 관하여는 今年 1 月 植谷日韓經濟協會 副會長을 團長으로 한 25 名の 團員이 訪韓하여 韓國 官民과의 設明會, 懇談會 그리고 工業團地の 見學등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다하였습니다. 내일 全體會議에서 植谷團長으로 부터 그 내용 및 成果에 대하여 報告가 있겠습니다.

둘째, 産業技術協力에 관하여는 먼저 前年부터 실시되고 있는 韓國 技術者の 研修가 계속되어 當年度는 初年度の 約 4 倍인 116 名

이 來日하여 대부분 소기의 成果를 거두고 지난 2월에 歸國했습니다. 또한, 技術移轉 韓旋窓口の 活性化에 관하여는 그 窓口인 日韓・韓日兩協會의 事務局에서 검토해 왔음니다만, 그 구체화는今年度부터 本格化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貿易協力에 관하여는 昨年 5월 韓國에서 約 200名에 이르는 大型 對日輸出促進團이 來日한 것을 포함하여 4회의 輸出促進團이 日本 各地를 방문했는데 이 業務는 주로 日本市場協議會와 日本貿易振興會가 擔當했습니다.今年度 5회의 對日輸出促進團이 韓國으로부터 派遣기로 되어 있으며, 이미 첫번째는 지난 3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海運協力에 관한 日本側の 要望은 韓國側에서 各關係機關에 전달했습니다.

넷째, 國交正常化 20周年에 따른 記念行事로써 提案된 靑少年交流에 관하여는 昨年 7月末부터 約 1週間 日韓經濟協會의 招請으로 韓國의 大學生 44名이 來日하여 日本의 大學生과의 懇談, 工場見學, 民泊을 했습니다. 또한, 今年 3월에는 韓日經濟協會의 招請에 따라 日本 筑波大學의 教授・學生 約 60名이 訪韓하여 靑少年交流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편, 20周年 紀念 심포지움은 지난 2月末 서울에서 개최되어 「2000年代에 있어서의 日韓經濟關係의 樣相」에 관하여 日韓兩側の 講師 7名으로 부터 각각 見解를 披露했습니다.

以上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會 議 議 題

基 調 演 說

韓國側：韓國의 市場開放政策과 韓日交易 增大 方案

日本側：日本の 對外政策 基調와 日韓經濟關係에 對하여

說 明

韓國의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說明

各委員會 合同會議 報告

- 1) 貿易擴大均衡委員會
- 2)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 3)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 4)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經 濟 協 力

- 1) 韓國의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調查團 派韓
- 2) 訪韓國投資環境調查團 活動報告
- 3) 對日投資誘致團 派遣時 協力要請

產 業 協 力

- 1) 部品開發協力및선 派遣
- 2) 技術移轉窓口 活性化
- 3) 技能工研修訓練 擴大

貿易增進

韓國輸出促進團 派遣에 對한 協力

交流事業

1) 靑少年交流事業에 對한 協力

2) '88 서울올림픽 開催에 對한 協力

韓國側代表團名單

(가나다順)

	姓	名	團體 會社職位	團體／會社名
顧問	具 滋 暻	KOO CHA KYUNG	會長	(株) 럭키金星
"	金 相 鴻	KIM SANG HONG	會長	(株) 三 養 社
"	宋 仁 相	SONG IN SANG	會長	東洋나이론 (株)
團 長	朴 泰 俊	PARK TAE JOON	會長 會 長	韓日經濟協會 浦項綜合製鐵 (株)
副團長	朴 大 振	PARK TAI CHIN	副會長 會 長	韓日經濟協會 中山綜合開發(株)
"	李 孟 基	LEE MAENG KEE	副會長 社 長	韓日經濟協會 大韓海運(株)
"	鄭 寅 旭	CHUNG IN WOOK	副會長 會 長	韓日經濟協會 江原產業(株)
團 員	姜 信 雨	KANG SHIN WOO	會長	(株) 三 一
"	姜 信 浩	KANG SHIN HO	會長	東亞製藥(株)
"	權 達 顏	KWON DAL AN	社長	京畿化學工業(株)
"	金 斗 河	KIM DOO HA	社長	三華化成(株)
"	金 壽 根	KIM SOO KEUN	會長	大成產業(株)

國 員	姓 名	國 體 會 社 職 位	國 體 / 會 社 名
	金 正 KIM JUNG	常 務	韓國火藥工會
//	金 鎭 秀 KIM JIN SU	理 事	現代 JAPAN
//	金 昌 達 KIM CHANG DAL	社 長	韓國技術開發(株)
//	金 昊 淵 KIM HO YOUN	理 事	韓國火藥工會
//	金 泓 殖 KIM HONG SHIK	社 長	(株) 金 福 酎
//	羅 昌 洙 NA CHANG SOO	專 務	韓國機械工業振興會
//	盧 仁 煥 ROH IN HWAN	副 會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	閔 錫 源 MIN SUK WON	會 長	正友開發(株)
//	朴 魯 聖 PARK RO SUNG	社 長	(株) 元伸實業
//	朴 承 復 PARK SEUNG BOK	社 長	생豆食品工業(株)
//	朴 洋 圭 PARK YANG GIU	副 社 長	現代綜合商事(株)
//	朴 泳 逸 PARK YOUNG IL	副 會 長	(株) 大 農
//	朴 宇 熙 PARK WOO HEE	教 授	서울大學校
//	朴 辰 熙 PARK JIN HI	會 長	慶北礦油(株)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體名／會社名
團 員	白 文	PAIK MOON	社 長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	白 忠 基	PAIK CHUNG KI	社 長	現代 JAPAN
"	徐 廷 翰	SUH CHUNG HAN	會 長	韓國合金鐵工業(株)
"	孫 烈 鎬	SOHN YUL HO	社 長	東洋錫鐵工業(株)
"	吳 寔 元	OH SHICK WON	東 京 支 部 長	東部製鐵(株)
"	尹 東 善	YOON DONG SUN	東 京 事 務 所 長	中小企業振興公團
"	尹 錫 民	YOON SUK MIN	會 長	大韓船洲(株)
"	尹 在 植	YOON JAE SCHIK	專 務	韓國染色 工業協同組合聯合會
"	李 相 高	LEE SANG SEOL	常 務	韓國貿易協會
"	李 尙 秀	LEE SANG SOO	社 長	巨洋商事(株)
"	李 爽 熙	RHEE SUK HI	副 會 長	(株) 大 宇
"	李 英 世	LEE YEONG SE	社 長	豐山金屬工業(株)
"	李 鍾 悅	LEE CHONG YUL	社 長	三鼎鋼業(株)
"	李 柱 範	LEE CHOU BOM	會 長	(株) 雙 龍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體／會社名
團 員	李 春 林 LEE CHOON LIM	會 長	現代重工業(株)
"	李 弼 坤 RHEE PIL GON	社 長	三星物産(株)
"	李 弼 元 LEE PIL WON	東京支店 代 表	曉星物産(株)
"	李 孝 益 LEE HYO ICK	社 長	三益樂器製造(株)
"	李 勳 東 LEE HOON DONG	會 長	朝鮮耐火化學工業(株)
"	蔣 慶 煥 CHANG KYOUNG HWAN	副 社 長	三星重工業 (株)
"	張 炳 贊 CHANG BYUNG CHAN	社 長	利川電機工業(株)
"	張 相 泰 CHANG SANG TAI	會 長	東國製鋼(株)
"	全 九 百 JEON KOO BAIK	會 長	(株) 製鐵化學
"	全 在 球 CHUN JAE KU	常任顧問	大韓浚滌公社
"	金 鍾 大 KIM CHONG DAI	會 長	大田皮革工業(株)
"	金 善 根 KIM SUN KEUN	社 長	亞細亞綜合金融(株)
"	鄭 在 德 CHUNG JAE DUCK	社 長	聯合鐵鋼工業(株)
"	鄭 鎬 湧 CHUNG HO YONG	專 務	韓進二番

	姓	名	國體 會社職位	團體／會社名
團 員	曹	圭 河	常 務	全國經濟人聯合會
	CHO	KYU HA		
"	周	永 爽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CHUH	YOUNG SOUK		
"	車	相 弼	副 會 長	大韓商工會議所
	CHA	SANG PIL		
"	崔	光 政	副 會 長	韓國電子工業振興會
	CHOI	KWANG JUNG		
"	崔	明 煥	社 長	興和工業(株)
	CHOI	MYUNG HWAN		
"	韓	在 烈	副 會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HAN	JAE YEUL		
"	許	昌 秀	常 務	럭키金星商事(株)
	HUH	CHANG SOO		
"	申	德 鉉	理 事	韓日經濟協會
	SHIN	DUCK HYUN		
事務局	洪	潤 植	企劃委員	韓日經濟協會
	HONG	YOON SHIK		
"	許	南 整	課 長	韓日經濟協會
	HUH	NAM JUNG		
"	李	柱 完	職 員	韓日經濟協會
	LEE	JU WAN		

日本側 代表團 名單

顧問	稻 山 I N A Y A M	嘉 寛 Y O S H I H I R O	(社)日韓經濟協會顧問 (社)經濟団体連合会会長
顧問	五 島 G O T O	昇 N O B O R U	(社)日韓經濟協會顧問 日本商工会議所会頭 東京急行電鉄(株)代表取締役
顧問	赤 澤 A K A Z A W A	璋 一 S H O I C H I	(社)日韓經濟協會顧問 日本貿易振興会理事長
団 長	杉 浦 S U G I U R A	敏 介 B I N S U K E	(社)日韓經濟協會会長 (株)日本長期信用銀行会長
副団長	植 田 U E D A	三 男 M I T S U O	(社)日韓經濟協會副会長 日商岩井(株)会長
副団長	梅 田 U M E D A	善 司 Z E N J I	(社)日韓經濟協會副会長 川崎重工業(株)会長
副団長	植 谷 U E T A N I	久 三 H I S A M I T S U	(社)日韓經濟協會副会長 山一証券(株)会長
団 員	斉 藤 S A I T O	英 四 郎 E I S H I R O	新日本製鉄(株)会長
団 員	玉 置 T A M A K I	敬 三 K E I Z O	(株)東芝相談役
団 員	富 永 T O M I N A G A	鐵 男 T E T S U O	(株)東食会長

団 員	石 井 I S H I I	正 巳 M A S A M I	三井物産(株)相談役
団 員	清 水 S H I M I Z U	保 夫 Y A S U O	宇部興産(株)社長
団 員	米 倉 Y O N E K U R A	功 I S A O	伊藤忠商事(株)社長
団 員	秋 田 A K I T A	兼 三 K E N Z O	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 委員長 (株)第一H O T E L 社長
団 員	外 山 T O Y A M A	弘 H I R O S H I	住友商事(株)副社長
団 員	橋 本 H A S H I M O T O	利 一 T O S H I K A Z U	三菱電機(株)副社長
団 員	下 川 S H I M O K A W A	漢 一 Y O I C H I	石川島播磨重工業(株)副社長
団 員	山 田 Y A M A D A	泰 三 T A I Z O	三菱商事(株)副社長
団 員	栗 山 K U R I Y A M A	昭 児 S H O J I	(株)TOMEN 副社長
団 員	伊 藤 I T O	十 四 郎 T O S H I R O	東洋ENGINEERING(株) 副社長
団 員	三 好 M I Y O S H I	正 也 M A S A Y A	(社)経済団体連合会専務理事
団 員	京 本 K Y O M O T O	善 治 Z E N J I	日韓貿易拡大均衡委委員長 (社)日本貿易会専務理事
団 員	渡 邊 W A T A N A B E	禮 之 Y O S H I Y U K I	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委 委員長 東京商工会議所中小企業委 委員長
団 員	望 月 M O C H I Z U K I	嘉 幸 Y O S H I Y U K I	(株)日本興業銀行常務取締役

團 員	大 盛 OMORI	謙 輔 KENSUKE	三菱重工業(株)常務取締役
團 員	中 井 NAKAJI	善 夫 YOSHIO	日韓機械工業協力委委員長 川崎重工業(株)常務取締役
團 員	青 木 AOKI	恒 哉 TSUNEYA	(株)神戸製鋼所常務取締役
團 員	宗 重 MUNESHIGE	章 AKIRA	三井物産(株)常務取締役
團 員	吉 田 YOSHIDA	亨 TORU	伊藤忠商事(株)常務取締役
團 員	竹 内 TAKEUCHI	宏 HIROSHI	(株)日本長期信用銀行常務 取締役
團 員	永 利 NAGATOSHI	久 志 HISASHI	東京急行電鉄(株)常務取締役
團 員	吉 澤 YOSHIZAWA	建 治 KENJI	(株)東京銀行常務取締役
團 員	瀧 TAKI	隆 明 TAKAAKI	東京商工会議所常任参与
團 員	功 力 KUNUGI	喜 久 男 KIKUO	(社)日本貿易会常務理事
團 員	三 上 MIKAMI	良 造 RYOZO	(社)日本船主協会常務理事
團 員	中 山 NAKAYAMA	迪 夫 MICHIO	日本輸出入銀行理事
團 員	村 岡 MURAOKA	邦 男 KUNIO	日本貿易振興会理事
團 員	野 口 NOGUCHI	庸 生 TSUNEO	川鉄商事(株)取締役
團 員	山 田 YAMADA	實 MINORU	丸紅(株)取締役
團 員	真 鍋 MANABE	善 暢 YOSHINOBU	三井造船(株)取締役動力 ENGINEERING事業部長

団員	下山 SHIMOYAMA	修二 SHUJI	日本工営協顧問
団員	島崎 SHIMAZAKI	京一 KYOICHI	NICHIMEN 協取締役
団員	湯本 YUMOTO	恭三 KYOOZOO	兼務江商協取締役
団員	内藤 NAITOU	篤 ATSUSHI	住友重機械工業協取締役 機械事業本部副事業本部長
団員	安達 ADACHI	宣治 SENJI	協第一勧業銀行取締役国際 渉外部長
団員	平野 HIRANO	政雄 MASAO	日本電気協支配人
団員	永井 NAGAI	紀 OSAMU	豊田通商協参与
団員	道明 DOUMYO	栄爾 EIJI	日本鋼管協経営企画部長
団員	榊 SAKAKI	美温 YOSHITADA	石川島播磨重工業協国際業務 GROUP 部長
団員	榊原 SAKAKIBARA	三郎 SABUROO	日商岩井協海外事業部 ASIA 大洋州室室長
団員	駒形 KOMAGATA	哲郎 TETSURO	大成建設協海外事業本部 営業推進室長
団員	山田 YAMADA	宗一 MUNAKAZU	協 TOMEN 海外業務部長
団員	染谷 SOMEYA	真一 SHINICHI	川崎重工業協営業総括室部長
団員	松本 MATSUMOTO	一郎 ICHIRO	野村証券協海外開発室部長
団員	吉岡 YOSHIOKA	英夫 HIDEO	富士電機協海外本部海外協力 部合併事業担当部長
団員	市川 ICHIKAWA	博也 HIROYA	(社)経済団体連合会経済協力部 次長
団員	古沢 FURUSAWA	實 MINORU	(社)日本貿易会理事企画部長

団 員	奥 原 OKUHARA	芳 夫 YOSHIO	㈱日立製作所国際事業本部 RELATION部部長代理
団 員	福 島 FUKUSHIMA	昌 治 MASAHARU	三菱重工業㈱海外部部長代理
団 員	尾 藤 BITO	善 雄 YOSHIO	㈱富士銀行秘書室長代理
団 員	今 井 IMAI	房 三 郎 FUSASABURO	伊藤忠商事㈱海外統轄部 部長代行
団 員	山 崎 YAMASAKI	璋 AKIRA	三井物産㈱業務部次長ASIA 室長
団 員	井 上 INOUE	一 郎 ICHIRO	丸紅㈱国際業務部ASIA 室長
団 員	一 沢 ICHIZAWA	宏 良 HIROYOSHI	㈱三井銀行本店業務推進役
団 員	高 橋 TAKAHASHI	栄 一 EIICHI	(社)日韓経済協会専務理事
随 員	大 河 内 OKOCHI	正 博 MASAHIRO	住友商事㈱海外業務部次長
随 員	北 島 KITAJIMA	健 造 KENZO	㈱神戸製鋼所ENGINEERING 事業部
随 員	大 井 OI	健 三 KENZO	日商岩井㈱海外事業部ASIA 大洋室課長
随 員	久 保 KUBO	恭 一 KYOUICHI	東京急行電鉄㈱企画政策室 主査
随 員	高 橋 TAKAHASHI	忠 男 TADAO	川崎重工業㈱営業総轄室 課長代理
随 員	波 戸 HATO	覚 SATORU	東京急行電鉄㈱企画政策室係長
随 員	田 子 TAGO	祐 三 YUUZOU	日本商工会議所国際部経済 協力担当課長
随 員	小 淵 KOBUCHI	修 二 SHUJI	山一証券㈱秘書役

随 員	松 本 MATSUMOTO	匡 TADASHI	丸紅(株)国際業務部 A S I A 室
随 員	宮 森 MIYAMORI	康 夫 YASUO	三菱商事(株)業務部部長代理
随 員	上 野 UENO	一 男 KAZUO	三菱商事(株)業務部課長
随 員	新 村 NIIMURA	清 志 KIYOSHI	日本貿易振興会 A S I A 大洋州 課長
随 員	川 西 KAWANISHI	勲 ISAO	N I C H I M E N (株)海外総轄部 市場 T E A M 部長付
事務局	中 島 NAKAJIMA	慶 之 助 KEINOSUKE	(社)日韓経済協会常務理事
事務局	林 HAYASHI	芳 典 YOSHINORI	(社)日韓経済協会常務理事 事務局長
事務局	木 村 KIMURA	宏 和 HIROKAZU	(社)日韓経済協会調査弘報室長
事務局	宮 島 MIYAJIMA	義 昭 YOSHIAKE	(社)日韓経済協会業務課長
事務局	安 達 ADACHI	哲 夫 TETSUO	(株)日本長期信用銀行調査部 調査役

韓國의 市場開放政策과 韓日交易增大 方案

－韓國側 基調演說－

서울大學校 教授
朴 宇 熙

(I)

두분 會長님과 代表團 여러분. 오늘 韓日 國交正常化 20 周年을 맞이하여 韓國市場이 지금 활짝 열려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兩國間의 商品, 資本, 技術, 人力交易에 크게 寄與하리라는 점에 대해 제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所見을 率直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학강단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또 그간 이곳 東京에 일로 여러번 往來하거나 잠시 滞在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交易의 實際 擔當者이신 여러분들께 책에 있는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축스럽기 그지없읍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學者의 소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參考가 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17 회에 걸쳐 여러 專門家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비슷한 題目에 對해 集中的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共通的인 結論이 어렴풋이나마 그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요약컨대 韓國側에선 日本市場을 더 많이 열어달라, 資本과 技術을 더 빌려달라는 內容이 많았고 日本側으로선 서로 商利에 따라 잘하고 있으며 지금대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現實的이

란 것으로 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안문제인 貿易不均衡이나 尖端技術移轉 두 問題도 마찬가지입니다. 環太平洋時代를 맞이하여 日本과 韓國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고 앞으로 兩國이 더 많이 交易을 해야 할 當爲性은 認定하면서도 結果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貿易赤字를 韓國側에선 減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尖端技術을 韓國으로 더 많이 보내달라고 要求하면, 日本側은 그런건 원래 그런 것이고 商品이나 技術 모두 企業이 商利를 바탕으로 去來하다 보면 서로 利益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政策的으로 이를 是正하려고 하면 오히려 無理가 따른다는 見解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韓國市場이 지금 크게 變하고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日本의 여러 企業이 商利에 따라 더 많이 韓國으로 올 수 있는 機會가 열려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兩國의 交易을 擴大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事實을 強調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日本側의 立場에서도 앞으로 韓國과 더 넓고 깊게 交易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世界經濟의 發展에도 寄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다른 演說때 보다 더 마음이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Ⅱ)

지금 韓國市場은 크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第1 交易相對國인 美國이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市場開放政策을 앞당긴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經濟利益을 위해서도 商品市場, 資本

市場, 서비스市場, 知的所有權市場등 여태껏 우리經濟가 그리 깊게 생각지도 못했던 商品以外의 여러市場에 대해서도 '88年을 고비로 劃期的인 開放措置를 취하고 있습니다. 自由, 競爭, 開放이 80年代 들어서의 經濟政策의 基調가 되었읍니다만 이것이 지금 劃期的으로 現實化되고 있습니다. 開放哲學이 政策에서는 물론 企業과 家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論議를 거친 후 이젠 開放政策의 韓國的 論理가 定立되고 있으며 昨年末에 國會를 通過한 「工業發展法」과 「科學技術革新促進法」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昨年 7月부터 實施된 外國人 投資業種擴大와 그다음 또 102個 業種을 追加指定한 措置, 연이어 投資認可, 事後管理節次를 대폭 간소화한 것은 外國企業의 資本과 技術이 韓國市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널리 연 것의 하나입니다. 오는 '88년까지는 거의 모든 產業에 걸쳐 外國人 投資가 開放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措置 때문에 昨年 한 해 동안 外國人投資가 5億달러, 1百27件으로서 '84年 보다 27%나 增加했습니다. 지난 '61年 以後 外國人投資 總累計가 26億5,496萬7,000 달러, 件數로는 1千1百86件인데 비하면 제법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日本 이외의 다른나라 多國籍企業들이 輸入自由화와 美國의 市場開放要求의 무드를 타고 合作, 販賣網擴大의 형태를 띠면서 進出을 加速化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美國의 NAS, 이태리의 올리베티에 이어 美國의 WANG 컴퓨터가 對韓投資를 確定했으며 自動車部品에서도 美·西獨등 10個 會社와 合作하고 있습니다. 石油化學, 製藥, 化粧品, 食品, 損害保險, 電解콘덴서, 전기변도기,

農機械, 會計法人, 호텔觀光, 證券市場, 綜合休養施設, 렌트카등 큰會社 작은會社 할 것 없이 進出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88年까지 300개 品目이 追加 輸入自由化되면, 또 서비스와 知的所有權이 하나씩 더 열리게 되면 이러한 趨勢는 더욱 加速化될 展望입니다. 資本市場도 轉換社債등 企業海外證券發行을 誘導하고 있으며 證券市場도 段階的으로 開放되고 있습니다.

특히 美日 兩國과 韓國과의 企業提携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鐵鋼, 自動車, 電子등 從前에는 볼 수 없었던 基幹產業과 尖端技術產業에서 企業提携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습니다. 自動車와 自動車部品에서는 韓・美・日 企業提携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3國이 立體的으로 對應해 가면서 아시아의 生産基地로서 韓國을 選擇하고 있습니다.

금년 1月 韓國政府는 外國人 投資業體가 生産하는 産業用 電子製品과 電子部品에 대한 國內販賣制限을 完全히 解除했고 또 高度技術產業과 中小企業優先育成業種에 대해서는 그 業種을 擴大하여 所得稅등 租稅減免措置를 취한 바 있습니다. 즉 5年間 法人稅 및 所得稅, 配當所得稅, 取得稅, 財産稅를 100% 減免해 주거나 또는 中小企業規模에 投資比率 50% 미만으로 投資할 경우 여러가지 租稅減免 惠澤을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韓國의 여러市場은 더욱 開放될 것입니다. '86년에 302個, '87년에 160個, '88년에 141個의 工產品과 農產品을 輸入自由化하게 되면 '88년에는 일부 化粧品, 纖維製品, 農產品을 除外한 거의 모든 製造品이 開放될 것이고 95.4%의 自由化率을 달

성할 것입니다. 自動車部品, 建設裝備, 家畜飼料, 工作機械, 면도기, 컴퓨터, 纖維絲, 발전기, 엔진部品, 冷藏庫 등 모두가 自由化 됩니다. 外國人 投資도 都・小賣業, 飲食宿泊業, 運輸, 倉庫, 廣告, 病院, 法律事務所, 通信情報處理 및 情報用役, 建設 및 엔지니어링, 海運, 通信業, 火災・海上保險이 自由化되고 '88 年에 自由化率이 90 %가 될 것입니다. 保險은 開放스케줄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映畫도 마찬가지입니다. 知的所有權 등 商標權 및 外國著作權 등 複製權은 法的措置를 이미 취하고 있으며 著作權은 國會에 關係法改正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物質特許와 소프트웨어는 外國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立場에서 當初의 豫定을 앞당겨 開放할 예정입니다. 外國人 投資企業은 成長과 收益率에서 國內業體들 훨씬 앞서르고 있습니다. 昨年 9 月 現在 投資金額 1 百萬달러 이상인 1 百 58 個 外國人合作 및 直接投資企業을 보면 이들의 賣出額增加率은 21.8 %를 記錄, 國內上場企業의 17.7 %, 製造業全體의 17.2 %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또 自己資本純收益率은 12.4 %로 國內上場企業의 7.5 %는 물론 美國의 10.6 %, 西獨의 3.22 %, 日本의 7.6 %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指標은 今年들어 훨씬 올라갈 展望입니다.

最近 原油價, 金利, 換率 등 國際價格構造가 크게 變하고 있음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엔貨價值上昇으로 인해 輸出障礙를 받고 있는 일부 日本企業體들이 生産原價를 節約키위해 馬山輸出自由地域으로 生産라인을 많이 移轉하고 있습니다. 生産移轉品目은 주로 精密技術이 要求되는 電子와 電氣部品 등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展望입니다. 이밖에 金屬과 精密機器, 船舶類 등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다. 또한 엔貨強勢로 日本企業들 中에는 이제까지 日本內에서 調達하던 機資材를 韓國등에서 輸入함으로써 原價節約을 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플랜트建設등 機資材중 鋼材와 部品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며 高品質, 高機能品을 除外한 一般機資材로 鋼材파이프類, 加工品, 部品類가 追加되고 있습니다.

엔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韓國經濟는 韓國元貨의 對外價値가 EC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싸지고 있으므로 輸出價格競爭力이 好轉되고 있으며 原油價 下落과 國際金利下落으로 소위 3低現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經濟成長率을當初 計劃했던 7%에서 7.5%로 늘려잡고 있으며 輸出도 330 億달러를 넘어설 展望입니다. 금년중 設備投資가 40 億달러정도 더 늘게 되면 國內景氣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部品素材市場도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美國과의 貿易摩擦도, 아니 우리 스스로 經濟를 開放하는 政策을 쓰고 있기때문에 輸出이 늘수록, 또 國內景氣가 나아질수록 더 많은 生産施設材를 日本에서 購入할 것이며, 素材部品등을 國產化하는 경우 日本의 對韓投資 및 技術移轉의 機會가 그만큼 더 넓어질 것입니다. 韓國經濟의 開放度는 여태껏 國際收支赤字로 주춤한 적도 있습니다만 今年을 고비로 貿易收支에 9 億달러의 黑字가 생기게되고 또 이것이 定着化되면 韓國은 日本과 달리 黑字를 무한정 크게 하는 政策을 쓰지않고 均衡된 狀態에서 輸入을 그만큼 더 늘리는 政策을 쓸 것입니다. 韓國經濟는 日本보다 市場規模가 좁기때문에 日本과 같이 完全自給型 經濟構造를 形成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國際分業의 利得이 무엇인지, 나아가 自由主義思想의 原點이 무엇인지를 政策에 實現하려는

意志가 강하기 때문에 政策的으로도 스스로 우리市場을 밖으로 開放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0年代를 前後로하여 韓國 市場經濟는 더욱 自由, 競爭, 開放 될 것이며 지금으로선 아직 非經濟的, 非開放的 要素가 있긴 합니다만 制度, 組織, 慣習,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도 점차 開放, 國際化될 것입니다. 產業調整도 產業合理化도, 情報產業化도 모두 이러한 시각으로 推進되고 있습니다.

(Ⅲ)

그런데 제가 보기론 日本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數値上으로는 商品輸入自由化率도, 資本市場開放度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自由貿易과 資本主義의 基本인 分業을 전연 무시하고 있습니다. 商品을 파는 데는 自由貿易을 제창하고 있으나 商品을 만드는 데는 꼭 保護主義的입니다. 아담 스미스나 신 고전경제학자, 新自由主義學者 어느 思想과 政策을 봐도 生産에 있어서 分業을 진제로 하지 않는 自由는 있을 수 없습니다. 民間企業이 工場을 세우고 돈을 꾸며 生産要素를 사들이고 열심히 일해서 싸게 또 높은 品質의 商品을 만들어 나라 안팎으로 자유롭게 파는 것은 좋습니다. 商利에 맞추어 商去來를 자유롭게 하는데까지는 自由를 마음껏 活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輕工業도, 中小企業도, 重化學도 尖端技術產業도 未來技術產業도 모두 빠지지 않고 日本內에서 生産, 輸出하려고 하는 생각은 꼭 鎖國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特性이 있고 장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서로 生産을 分業, 特化하는 것

이 모두를 위해서나 各國의 經濟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國際貿易의 基本理論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원세트 經濟로 全範圍産業化를 이루면서 國際分業을 도외시하는 건 自由主義의 根本을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日本은 옛날의 英國이나 美國과도 달리, 유럽 여러 나라내에서 相互補完的인 經濟構造를 형성한 것과도 달리, 西獨과 英國, 프랑스, 이태리 나아가 자그마한 스위스나 벨지움, 화란등도 자기에 알맞는 商品을 特化, 分業하여 서로 交易을 增大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독 日本만이 世界經濟史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非分業的生產體制를 구축하는 바로 거기에 지금의 美日 經濟摩擦, 世界的 經濟危機의 根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日本은 지금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너무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日本人 스스로 아는 사이 또 모르는 사이 지구상의 後進國이나 開發途上國, 新興工業國은 차치하고라도 先進工業國인 美國과 西獨등도 비틀거리고 있는 사이 유독 日本만이 生産에 있어 그 效率을 最大化하고 있고 넘쳐 흐르는 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日本의 基本對外政策은 非分業的으로 어떤 商品이든 國內에서 싸고 좋게 만들어 貿易黑字를 늘리고 그 돈으로 나라밖의 證券, 株式, 農場, 土地등을 사들이거나 또 남에게 돈을 꾸어주든가 投資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이런 政策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아직도 日本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對美貿易黑字만해도 年 400 億달러에 달한다는 것, 純海外資産이 곧 5,000 億달러에 이른다는 것, 美國이 史上最大의 純債務國化하는데 日本만이 유럽, 東南亞, 南美 또

는 南太平洋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原資材를 輸入하는 나라 이외에는 어느 한군데도 黑字를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는데 問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진행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조정을 하면서 남의 나라에 줄 건 주고 자기가 할 건 하는 國際自由經濟體制를 형성하지 않고 海外投資의 경우도 技術移轉의 경우도 組立과 加工에 그치려하고 그외 여러 對外援助와 協力도 輸出과 送金擴大로 직접 연결하려하는 것이, 그것이 規模가 적을 땐 모르지만 커지고 깊을 수록 지금같은 國家單位의 國際經濟構造下에선 無理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는 商品마다 輸出로 이어지게되니 옛날 그리스의 神話인 미다스(Midas)의 얘기가 상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Ⅳ)

그러면 앞으로 韓日經濟關係를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특히 韓國市場이 開放되며 그것을 政策基調로 삼고있을 때 日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韓國에 對應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日本은 지금 國際分業의 참뜻을 이해하고 日本經濟의 발전단계가 이제 技術을 輸出, 製品을 輸入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깊이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日本의 貿易과 技術의 現發展段階가 獨自的으로 新製品을 開發, 그것을 輸出하며 또 製品輸出과 同時에 技術을 輸出하는 단계에서 製品輸出없

이 技術만을 輸出하거나 技術을 輸出하고 製品을 輸入하는 形態로 經濟構造와 內容이 이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發電, 鐵鋼, 化學, 플랜트 輸出이나, 유럽企業과의 合作에 의한 現地生産등은 물론 韓國, 臺灣, 싱가포르등에 部品工場을 建設 그 部品을 輸入하는 것등이 그 例가 됩니다. 最近들어 韓國에서 철수하는 日本企業이 없지않습니다. 現地에서의 人件費上昇, 日本國內에서의 절저한 自動化때문에 日本國內에서의 코스트가 반드시 높지않고 오히려 더 品質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또 鐵鋼 플랜트 및 技術輸出에 의한 부메랑効果を 두려워해서 그런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一時的인 傾向을 전부로 착각, 무엇이든 國產主義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世界 經濟構造와 지구경제의 깊이를 모르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日本은 이제 尖端技術産業, 未來技術産業, 그리고 日本이 잘하고있는 여러 産業등 日本이 꼭 가져야 할것들 만으로도 충분히 發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一部産業은 直接投資, 現地生産, 合作事業의 推進으로 이웃 나라에 移轉시켜야되며, 특히 플랜트輸出에 따른 技術移轉과 엔지니어링輸出, 또 技術集約的인 商品輸出을 促進함으로서 技術開發의 國際分業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技術의 國際共同開發은 물론 지구레벨에서의 尖端技術開發協力과 國際生産에서의 協力도 있습니다. 素子, 部品 및 材料 輸出에 따른 技術協力도 必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生産의 分業에 있습니다. 技術레벨에 따라 日本과 韓國間에 分業關係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企業內的 國際分業을 深化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디오機器, 電子

樂器, 카메라, 시계 등 高級商品에서 一般普及品까지 넓은 폭으로 可能합니다. 日本이 技術을 公여, 韓國工場에서 生産 日本이 輸入함으로써 國際的인 水平分業이 이루어지고 日本企業도 多國籍企業化되어 결과적으로 이런 分業關係에 따라 製品輸入을 많이하는 日本企業은 그 나라에 高級品の 輸出을 오히려 더 많이 할수 있게도 됩니다. 요즘 商品은 電子化될수북 메카트로닉스化될수북, 그 속에 社會文明的 要素가 내재되게되고 生産要素도 資本, 勞動만이 아니라 세련, 치밀, 청결, 應用, 組織, 근면등이 더 크게 作用하기 때문에 日本은 高級化, 洗練化된 商品을 만들고 韓國은 韓國文化에 알맞는 또 韓國人의 기질에 맞는 商品을 만들어 日本에 輸出할 수 있습니다. 지금 韓國市場은 日本이 技術을 주어 開發할 여지가 많은 市場입니다. 輕工業과 重化學工業構造가 形成되어 部品, 素材, 機械設備의 市場이 무척 커지고 있으며 産業政策的으로도 中小企業, 에너지 節約, 人力開發에 소위 機能의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日本企業도 이런 惠澤을 얻을 수 있고 특히 勤勉, 推進力등 韓國人의 기질을 잘 살린 商品을 應用開發하면 어느 정도의 賃金上昇과 其他 生産障礙要因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요즘 美國에 소위 Hollow Corporation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日本이 韓國에 技術을 輸出, 韓國의 장점을 살려 美國에 部品, 소재등을 輸出하면 日本과 韓國에 다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企業次元에서 日本이 수직적통합이나 內部化戰略 또는 多國間協業關係를 구축함으로써 合作投資 및 技術契約등을 넘어서 韓日協力을 推進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世界的으로 확산되고 있는 航空機製造, 自動車, 通信, 컴퓨터産業과 같이 先進, 後

進의 구별없이 參與하는 共同投資는 多國間 協業의 좋은 예가 됩니다. 韓國의 自動車會社, 部品業體, 電子業體의 경우도 이에 該當됩니다. 오늘날 國際分業의 概念은 國家單位の 地域分業에서 相對的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機能分業으로까지 擴大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分業의 協業에 參與하게 되면 低賃金을 바탕으로한 單純下請關係에서 製品 技術, 資本投資, 共同研究開發, 市場開拓, 經營管理등에 이르기까지 多國間協業을 이루게 되고 協業의 利益을 相對적으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저의 日本人 동료 한 분이 같이 研究한 資料를 보면 韓日間 分業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국제감각을 가진 日本企業은 오히려 韓國보다 한 발자국 앞서 韓國에 進出코자 하는 企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投資나 合作動機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日本은 高級, 大型, 精密한 製品을 生産하고, 韓國은 一般, 中小型, 汎用製品을 生産하는 식의 機種分擔關係도 可能하고, 日本은 組立, 韓國은 部品生産, 또는 業種에 따라 日本은 部品生産, 韓國은 組立할 수도 있습니다. 日本이 企劃開發, 設計하고 韓國이 生産할 수도 있고 日本이 소프트웨어, 韓國이 하드웨어를 生産할 수도 있습니다. 韓國이 國家目的인 高度技術産業에 必要한 部品 및 裝置의 一部를 日本에서 購入, 이를 바탕으로 國產化를 進展시킬 수 있고 基盤目的인 매우 尖端的인 技術産業을 日本의 專門家 또는 研究機關과 協力하거나 技術導入하여 國產化를 圖謀, 國內市場을 擴大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軍事技術, 通信技術, 에너지技術 및 電子工學素子, 컴퓨터, 바이오 테크놀로지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급속히 發展하는

技術産業은 日本에서 工場을 誘致 그 工場에서 技術移轉을 圖謀할 수도 있고 産業用로봇, 計測機器, 통신기기, OA機器, VTR 등은 輸入代替를 目標로 合作하거나 部品을 購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工作機械, NC裝置, 컴퓨터 주변기기, 事務自動化機器등은 海外市場에도 進出할 수 있고, 특히 TV, 라디오 카세트, 음향기기, 전자부품 등은 日本과 共同으로 製品機種을 分擔, 相互間的 輸出入을 擴大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商品은 需要가 擴大되고 있고 日本側으로서도 貿易收支의 대폭적인 黑字防止를 위해 輸出에 있어 高級商品 一邊倒로 선호하던가 아니면 海外로부터의 輸入을 擴大해야 할 必要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商品의 日本市場進出은 물론 品質向上과 세련등 日本市場의 必要에 맞도록 生産管理技術의 協力도 必要할 것입니다. 多品種, 多機種의 大量生産을 위해 신축성있는 生産을 可能토록 해야 할 必要도 있습니다. 日本은 韓國에 基本技術을 輸出, 韓國에서 이를 應用, 日本內에서 生産되지 않는 商品을 日本에 輸出하는 生産分業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V)

이러한 韓日 分業形成은 韓國側의 市場開放과 아울러 日本經濟의 構造調整이 必要하며 事實 日本側으로서는 새로운 開放哲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貿易 不均衡이 어느측에 責任이 있든, 앞으로의 兩國關係는 日本側의 脫亞入歐에서 脫日入世하는 새로운 哲學이 소요됩니다. 日本은 혼자서만 번영, 안주하려는 鎖國의 窠에서 벗어나 균형된 高度技術國家를 形成하려는 새로운 사도가 定立되어야

하며, 얀·팀버젠(Jan Timbergen)의 말과 같이 日本은 이제 地球的인 시야로 또 世界史的인 시야로 日本의 價値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 이래 한 나라만의 번영이 오래 지속된 예가 없으며 영원히 번영한 나라도 지금까지 하나도 存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認識해야 합니다. 여태껏 100년이 상을 배우고 따라가는데만 또 이기는데만 열심이었던 日本, 經濟主義와 成長에만 질주하였던 日本은, 이제는 새로운 世界的 觀點에서의 價値를 생각하는 哲學的 立場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相互依存經濟學을 숙고하면서, 경제만 아니라 남의 나라의 文化와 사람의 心情까지도 생각하는, 그래서 動態的 共同利益의 極大化와 相互利益의 기본적 조화에 바탕을 둔 共存의 哲學을 지니고, 이것이 現實的으로 作動할 수 있는 具體的方案을 구상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日本の 對外政策基調와 日韓經濟關係에 對해서

－ 日本側基調演說 －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赤沢肇一

JETRO의 赤沢입니다.

대단히 긴 歷史를 가진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基調演說을 하게 된 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年餘의 世界經濟를 되돌아보면 매우 큰 意味를 가진 事件이 몇가지 있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두가지 問題는 世界經濟에 가장 큰 影響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는 昨年 9月 22日의 G 5 (先進 5個國 財務長官 會議) 合意에 의한 달러貨 強勢의 修正과 그에 의한 円貨強勢의 進行, 또 그에 따른 世界的인 金利의 低下라는 事態입니다.

둘째는 昨年 12月 7日에서 9日까지 열린 OPEC 總會가 반드시 合意에 達했다고는 할 수 없는 事實로서, 그 後 原油價格이 急速한 下落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아시는 바와 같이 原油價格은 스포츠價格이기는 하지만, 現在 이미 1 배럴당 15 달러以下라는 싼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事實은 世界經濟에 있어서 대단히 複雜하고, 또한 어떤 意味에서는 深刻的한 問題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の 경우, 지금 어떤 狀態에 있는가를 이러한 事態에 立脚해서 생각해 보면 円貨의 對美貨換率은 昨年の G 5 의 合意, 즉 9月 22日 以後 180日間에 걸쳐 1日平均 37錢, 즉 3日에 1円

程度로 대단한 速度로 上昇했습니다. 現在는 尙 아시아시피 180
円前後의 水準까지 된 것입니다. 円貨의 急激한 昂騰이라는 事態
가 日本經濟에는 대단히 커다란, 일종의 쇼크를 주고 있다고 本人
은 理解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쇼크니까 이런 狀態가 2年
이고 3年이고 繼續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一
時的의기는 하지만 상당히 深刻한 쇼크를, 特히 中堅・中小企業 또
는 輸出에 依存하고 있는 地域의 經濟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事實에 비추어 조금전에도 黑田局長으로부터 指摘
이 있었던 것처럼 日本政府는 지난 4月 8日 綜合經濟對策을 決
定하고 發表했습니다. 즉 7個項目으로 된 當面 經濟에 對한 對
策입니다. 그 發表에는 여러 事項이 決定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現在 円貨強勢에서 오는 쇼크를 緩和시켜나가야 하며,
日本國內는 물론 世界 各國으로부터도 要望되고 있는 日本의 經濟
成長을 維持해 가기 위한 對策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같은 事態가 그다지 오래 繼續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原油價格이 내려가고 있
기 때문에 金利도 日本의 경우는 固定換率이 2回에 걸쳐 내려가
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態란 어쨌든 徐徐히나마 日本經濟의 今後
의 成長 UP에 寄與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關
係企業에서도 우리들이 調査한 바로도 新製品開發努力에 拍車를 加
하거나, 製品의 高級化를 圖謀해 가는 등, 그러한 事態에 對處해
가기 위한 格別한 努力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狀態아래 좀더 높은 次元에서 생각해 보면, 現在 日本의 對

外經濟關係에 있어서는 '85 年の 貿易黑字가 560 億달러, 經常收支로 보면 493 億달러라는 대단히 큰 黑字로까지 到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GNP 對比로 보면 實로 3.6 %라는 일찌기 없었던 대단히 큰 黑字, 말하자면 經濟政策上 대단한 對外的 不均衡狀態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 이같은 큰 經常黑字가 繼續되면 우리나라의 經濟運營에 있어서도 또 世界經濟의 調和있는 發展이라는 觀點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狀態라는 認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中曾根總理의 諮問機關인 國際協調를 위한 經濟構造調查研究會는 이러한 事態에 立脚해서 昨年 10 月以後 約 5 個月間에 걸쳐 研究會를 繼續한 끝에 지난 7 日에 最終 報告書를 中曾根總理에게 提出했습니다.

이 研究書에서도 모든 面에 있어서 今後 經常收支不均衡을 國際的으로 調和있게 하는 方向으로 着實히 縮小시킬 것을 中期的인 國民的 政策目標로서 設定해야 하며 이것을 政府가 決意하고 内外에 表明해야 한다고 勸告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中期的인 目標로서 現在 日本이 가지고 있는 異常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큰 經常收支黑字를 着實히 縮小시켜나가기 위해서는 于先 昨年 7 月에 政府가 決定한 액션프로그램의 早期完全實施를 圖謀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貿易, 資本, 金融 등의 分野에 걸친 市場化 努力을 더욱 끈기있게, 더욱 漸進的으로 實施해 가는 것 외에는 方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當面政策으로 보다 根本的으로 는 日本經濟의 構造를 世界經濟와 調和되도록 調整해 가는, 말하자면,

積極的인 産業調整을 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必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國際協調型的 産業構造로 日本經濟를 變更시켜나가기 위해서는 特히 다음 두가지 점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積極的인 國內産業의 調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國際競爭力이 弱화된 産業에서부터 國際競爭力이 강한 産業쪽으로 日本經濟를 점차 變換시켜 國際競爭力이 弱하다고 할까요, 比較的 低位의 産業에 對해서는 차라리 海外의 産業에 맡겨나가든지, 혹은 海外로부터의 輸入에 보다 크게 依存을 해가려는, 말하자면 輸出第一主義의 産業構造에서 世界經濟안에서 日本經濟가 調和를 維持해 나갈수 있는 産業構造로 轉換을 해가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海外에 對한 直接投資의 推進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러한 尠대한 黑字를 背景으로 日本은 資本輸出國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傾向을 더욱더 進展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끈기있고 中長期에 걸친 政策을 日本經濟로서는 着實히 進展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總理大臣의 諮問機關인 研究會에서도 대단히 強하게 提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國際經濟에의 貢獻이라는 面에서도 日本經濟는 內需를 中心으로 앞으로 先進國 平均보다 약간 높은 程度의 成長維持를 內需中心으로 꾀해나간다는 것이 아주 重要한 前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經濟面뿐만 아니라 科學技術, 文化, 學術 등의 面에 있어서 國際的인 責務도 다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 研究會 報告안에 記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의 繁榮없이 日

本經濟의 今後의 發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報告書에 들어 있는 基本的인 생각이며 그에게 總理는 이 報告書를 받고, 今後 政府에서도 黨과 一體가 되어 이 政策을 推進해 나가고자 하는 決意를 表明한 바 있습니다. 本人도 그 研究會의 一員으로서 5個月間 參加해 왔음니다만, 總理의 強한 決意 表明을 듣고 대단히 기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觀點에서 앞으로의 日韓關係도 가장 바람직스러운 方向으로 나가야 하겠음니다만, 當面한 韓國經濟는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듯이 極히 有利한 狀態에 있다고 보입니다. 바람은 韓國經濟에게 좋은 方向으로 불고 있다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今年은 3低有利”라는 말을 나도 韓國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世界的인 金利의 低下, 또는 元貨의 對円貨 換率에 있어서의 比較的 낮은 現在 狀態, 또 原油나 一次產品 價格의 低下등 3가지가 낮은 狀態, 즉 3低有利라는 것인데, 아마도 올해 韓國의 貿易은 처음으로 黑字를 記錄할것 같다는 것을 本人도 저희 JETRO의 調査部로부터 報告받고 있습니다. 다가올 太平洋時代를 생각할 때, 또 現在 日美關係 혹은 韓美關係와 더불어 日韓關係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게다가 近年에는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이 우리들 日韓關係에도 새로운 影響트를 주고 있는 듯이 생각되며, 또 이 關係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發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日韓貿易은 '80年以來 年間 100億달러 以上の 高水準을 繼續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內容을 最近의 傾向으로 分析해 보면 韓國의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軸으로 해서 점차 水平分業的인 方向을 指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또 韓國으로부터의 製品輸入의 內容에 있어서도 附加價值가 높은 工業製品으로 移轉을 하고 있는 狀況도 最近 2~3年 사이에 確實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어서, 만일 지금과 같은 円貨強勢라는 狀態가 安定的으로 繼續되어 간다고 하면 이 體制는 점점 加速化되어 가지 않을까 하고 本人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日本의 對韓投資도 '82年以後 急速히 擴大傾向을 繼續하고 있어서 '84年, '85年 모두 金額으로는 過去 最高를 記錄하고 있습니다. 이 事實은 韓國의 企業自體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急速한 高度化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日本企業의 進出分野도 그에 발맞추어 技術集約型 産業으로 轉換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아까부터 發表가 있었듯이 韓國의 經濟成長은 上向調整中에 있으므로, 이러한 安定된 韓國의 經濟퍼포먼스에 基礎한 內需의 擴大라는 것이 日本側에서 본 投資環境으로 대단히 好感이 가기 시작한 것도 큰 原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說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韓國의 外資導入制度의 改正과, 그에 따른 韓國의 投資環境整備라는 것도 또한 이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日韓貿易關係 혹은 日韓産業協力, 投資促進이라는 면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世界經濟의 움직임속에서 점점 새로운 움직임을 強化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技術協力の 면에서도 역시 그런 傾向이 세로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技術協力の 傾向을 보면 '70年代의 裝置産業育成段階에서부터 더욱 韓國經濟가 本格的인 組立加工産業으로 移行해 가고 있으며, 그

에 따라 노우하우를 包含한 日本의 技術協力餘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特히 電氣電子學, 自動車라는 面에서는 包括的인 技術協力提携, 또는 OEM을 통한 技術協力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는 狀況입니다. 또 소프트웨어産業에 있어서도 役割分擔이라고 할까요, 韓國의 優秀한 頭腦를 日本側에서 活用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面도 보입니다. 政府베이스에서는 '85 年에 科學技術協力協定이 締結되고 中小企業의 技能工研修受容도 推進되고 있는등, 이러한 全體的인 環境속에서 韓國經濟의 高度化에 卽應한 技術移轉이라는 것이 전차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日韓經濟關係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貿易, 投資, 技術協力の 各分野에서 緊密化를 더해가고 있는데, 今後는 역시 조금전 朴團長의 말씀도 계셨듯이 역시 水平分業이라는 形態를 指向하며 앞으로 더욱 深化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總理의 諮問機關인 研究會의 리포트에도 있듯이 日本側으로서는 今後 積極的인 産業調整을 해나감으로써 世界經濟와 調和된 經濟構造를 위해 努力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이러한 産業調整 또는 轉換이라는 것은 日本의 産業 特히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相當한 苦痛을 同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政府의 이에 對한 環境整備라고 할까요, 이것을 促進시켜 나가기 위한 各種의 政策과도 더불어 民間企業의 勇氣있는 先見性이 그것을 實現시켜 나가리라고 우리는 眞心으로 期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韓國經濟에 있어서도 今後 解決해야할 問題를 몇가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民間

主導型 經濟로 더욱 移行해가야 한다는 問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特히 日本에서도 數年來 큰 問題로 取扱되어, 政府도
그 몇가지 큰 問題에 對해 積極적으로 解決을 圖謀해 오고 있는
말하자면 Deregulation, 政府에 의한 各種 規制의 解除라는 問
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韓國에 있어서도 그러한 問題가 今後
있으리라 나는 想像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韓國의 中小企業의 體質의 強化라는 問題여서 數年來
合同會議에서도 論議되었고, 또 日韓雙方이 서로 協力해 가면서 이
問題의 解決에도 努力해 가야할 分野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現在 韓國政府에 의해 推進되고 있는 貿易, 投資의 더한층의 自由
化 段階에 있어서도 그러한 큰 努力이 期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日韓 雙方 모두 여러가지로 克服해 가는데는 困難하며
苦痛을 隨伴하는 問題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各自의 立場을 充分
히 理解해 가면서 努力해 나가면 將來 兩國間의 水平分業이 한층
加速化되어 日韓 兩國經濟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 到來하는 太平
洋時代를 맞아 繁榮해 나갈 것으로 眞心으로 期待하며 또 그렇게
展望하고 있는 바입니다.

韓國의 第 6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主要部門別 推進施策說明)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調整 4 擔當官 金 湧

目 次

- I. 6 次計劃의 背景
- II. 6 次計劃의 基本目標와 重點課題
- III. 主要部門別 推進施策
 - 1. 金融部門 施策
 - 2. 貿易部門 施策
 - 3. 工業部門 施策
 - 4. 農業部門 施策
 - 5. 對外協力部門 施策
- IV. 結 語

I. 6 次計劃의 背景

經濟企劃院에 勤務하는 調整 4 擔當官 金湧입니다.

오늘 韓・日兩國의 著名하신 經濟界人士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第 6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 關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經濟는 지난 4 半世紀 동안 量的擴大를 거듭하면서 質的으로도 高度化를 達成하여 國

民生活의 各部門에서 刮目할만한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20餘年이라는 比較的 짧은 期間동안에 年平均 8%가 넘는 經濟成長으로 1人當 GNP는 2,000 弗에 이르렀으며, 輸出規模 또한 300 億弗에 達하여 名實共히 世界的 注目を 받는 新興 工業國으로 成長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나, 한편 우리經濟는 그동안의 高度成長過程에서 派生되어 온 産業間 및 地域間 發展隔差를 縮小하고 經濟力集中 및 不實企業問題등 構造的인 非能率要因의 除去와 함께 所得分配를 改善하여 勤勞者와 低所得層의 生活向上을 圖謀하고 두터운 中產層을 形成해 나가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80年代에 들어서 增大되고 있는 先進國들의 保護貿易 障壁과 後發開途國의 追擊을 克服하면서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을 계속 推進하기 위하여는 競爭과 開放을 바탕으로 産業能率을 向上시키고 技術開發과 人力開發體制를 再整備 強化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課題를 얼마나 成功的으로 解決해 나갈 수 있는나의 與否에 우리가 얼마나 빠른 將來에 先進社會에 進入할 수 있는나의 關鍵이 달렸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6次 5個年計劃 期間인 '80年代 後半과 '90年代初는 우리가 先進社會로 進入하기 위한 體制를 成功的으로 整備해야할 歷史的 轉換期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금년 6月末 完成을 目標로 6次 計劃이 現在 樹立中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6次計劃의 基本目標와 重點課題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確定된 主要部門別 推進施策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6次計劃의 基本目標와 重點課題

6次計劃은 그동안 다져온 「安定」의 恒久的 定着을 基本前提로 「能率」과 「衡平」의 提高에 重點을 두어 「自力成長 土臺위에서의 福祉社會 建設」을 基本目標로 定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 重點課題를 設定하였습니다.

첫째, 經濟社會의 制度發展과 基本秩序의 定着입니다.

能率과 合理性을 바탕으로 經濟社會 各 部門의 制度를 改善하고, 自律, 競爭 및 開放에 입각한 市場經濟秩序를 定着시키나감으로써 民間의 活力을 바탕으로 成長 潛在力이 自生的으로 培養·發顯될 수 있는 「經濟運用의 틀」을 마련하며, 均等한 機會와 함께 努力에 相應하는 報償이 주어지는 「公平한 競爭의 準則」을 確立 함으로써 社會的 配分에 대한 正當性과 社會 各 階層間의 相互信賴를 提高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活力있는 地域社會의 發展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從來의 國土開發 및 首都圈 人口分散 次元에서 脫皮하여 地域開發 全分野에 걸쳐 綜合적으로 接近하되, 地域間均衡發展의 主要內容이 되는 國民生活基盤施設, 社會間接資本, 그리고 民間經濟支援基盤 및 地方大學을 地域間 均衡있게 擴充하고, 地方自治制 實施에 副應하여 地方의 經濟, 商工 및 社會 福祉行政 機能을 強化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社會的 衡平 提高와 福祉增進을 위하여는 就業 機會를 擴大하고 勤勞條件을 改善하여 勤勞者 福祉를 增進하며, 國民의 最低生活을 保障하고 老齡・疾病等 社會的 危險에 對備할 社會保障制度를 擴大함과 아울러 零細民等 經濟的으로 어려운 階層의 生活向上을 위한 公的扶助事業을 改善하는 한편, 住宅・教育・保健醫療등 國民의 基本的 生活需要를 充足토록 할 것입니다.

네째로, 產業構造의 改編과 技術立國의 實現을 위하여는 새로운 國際分業 構造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갈 수 있도록 國內產業構造를 改編하고, 技術 및 人力開發을 通하여 產業의 全般的인 競爭力을 向上하며, 中小企業과 農水産部門의 生産性 向上을 支援하여 産業間 均衡 發展을 圖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政策課題와 더불어 計劃期間中 達成하게될 巨視的 經濟目標를 말씀드리면, 經濟成長率은 年平均 7% 水準을 持續하여 '91 年에 國民總生産은 1,500 億弗, 1人當 國民總生産은 3,500 弗 水準에 이를 것이며, 都賣物價도 2~3% 線에서 계속 安定되고 國際收支 역시 黑字幅이 점차 擴大되어 '91 年에 22 億弗의 經常收支 黑字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됩니다.

다만, 最近의 「엔」貨 強勢, 油價下落, 金利引下등 國際經濟 與件의 變動을 勘案하여 현재 關聯經濟指標에 관한 調整作業이 進行되고 있어 多少의 修正이 豫見되고 있습니다.

Ⅲ. 主要部門別 推進施策

다음은 主要部門別 推進施策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融部門을 말씀드리면 通貨의 安定的 供給基調를 堅持하면서 計劃期間中 實物經濟의 움직임과 金融市場의 構造變化를 勘案하여 通貨를 彈力的으로 供給할 것입니다.

金融自律化的 推進과 金融產業의 業務領域 調整에 있어서는 金利自由化에 必要한 與件造成에 注力하면서 貸出金利부터 段階的으로 自由化 해나가고 銀行圈과 競合되는 第2金融圈 業務를 漸次 縮小 廢止하며 固有業務를 中心으로 專門化 및 公正 競爭 與件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金融資金의 効率的 配分을 위하여는 大企業에 대한 偏重 與 信을 抑制하고 中小・中堅企業에 대한 支援을 擴大할 것입니다.

특히 新技術集約型 冒險企業에 대한 資金供給 擴大, 新技術事業 投資會社 育成, 技術信用保證 擴大등을 通하여 技術開發 金融支援을 強化하고 中小企業 專擔銀行의 機能을 擴充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圓滑한 資金供給을 期하며 地方金融機關을 地方所在 中小企業支援 專擔機關으로 育成함으로써 地域金融을 活性化할 것입니다.

金融貯蓄 増大를 위하여는 年金型 貯蓄制度 導入등 多様な 目的附 貯蓄手段을 開發 普及하여 '91년에 國內貯蓄率 33%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外債管理의 効率化에 있어서는 換率의 安定的 流動化를 通한 輸出競爭力 確保와 輸入需要의 合理的 管理로 國際收支 黑子 基調를 定着시키며 投資財源을 國內貯蓄 增大로 自力調達하여 外債增加를 抑制함과 아울러 元利金 償還負擔率을 繼續 낮추어 '91년에는 13.7%를 維持토록 할 것입니다.

純外債도 經常收支 黑子擴大에 따라 '87年以後 減少趨勢를 보이게 시작하여 '85年の 355億弗에서 '91년에는 295億弗로 縮小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貿易部門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通하여 輸出을 持續적으로 伸張시켜 나갈 計劃입니다.

이를 위하여 機械, 電子部品工業의 基盤을 擴充하며 精密化學, 素材工業을 集中 育成하여 輸出構造의 高附加價值化를 期하고 纖維, 신발, 合成樹脂 등 輸工業製品의 新製品開發과 製品 高級化를 推進할 것입니다.

또한 6次計劃 期間中 年平均 13.1% 輸出增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設備投資를 持續적으로 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90年代初 部品の 本格的인 輸出商品化를 위하여 半導體, 精密部品 등의 輸出을 促進하고 先進國 部品製造業의 國內 移轉을 積極 受容토록 할 것입니다.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分業生産體制를 擴大하여 小量多品種 注文에 圓滑히 對應해 나갈 計劃입니다.

輸入依存的 産業體質을 改善하기 위하여는 機械類, 部品 및 素材의 國產化와 에너지節約型 技術開發을 促進할 것입니다.

한편 工業部門의 主要施策을 말씀드리면, 産業構造 調整의 効

率的 推進을 위하여 資源, 에너지多消費産業構造로부터 技術人力 集約 産業 및 「소프트」産業部門을 擴充하면서 國際分業의 擴大趨勢에 따라 機械, 電子, 自動車産業部門의 産業能力을 補強함과 아울러 構造的으로 競爭力 補完이 어려운 産業 部門에 대하여는 合理化를 段階的으로 推進해 나갈 것입니다.

均衡있는 産業發展과 産業組織의 健實化를 위하여는 中小企業 創業支援基金造成을 擴大하여 中小企業部門에 대한 投資를 積極 誘導하고 中小企業의 專門化와 固有業種指定制度를 通하여 大企業과 分業 및 協力을 增進하며 各 地域特性에 맞는 中·小規模工業團地를 造成해 나갈 計劃입니다.

經濟力 集中의 緩和 및 企業財務構造의 改善에 있어서는 大企業의 異種業種間 企業結合과 系列企業間 相互 出資를 抑制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農業部門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農漁村地域의 開發과 産業化를 並行하는 方向으로 開發戰略을 轉換해 나갈 計劃입니다.

지금까지는 可用財源의 制約으로 「先産業化→後補完의 農漁村開發」의 方式으로 推進하여 왔으나, 이러한 過程에서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에 따른 相對的 貧困感으로 活力이 떨어지고 人口와 産業의 大都市 集中이 繼續될 경우 非能率로 인한 國家發展의 制約이 우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年代까지 農漁村의 生活與件을 都市水準으로 改善해 나간다는 前提下에 農漁村 道路鋪裝, 上水道, 電話普及

및 醫療惠澤을 大幅 擴大함과 아울러 農外所得 比重을 크게
높여 農漁村 所得構造를 劃期的으로 改善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主要施策으로서는 農漁村地域, 入住工場에 대하여 稅
制支援을 強化하고 農地轉用節次의 簡素化등 土地利用 規制를
緩和하여 農業所得源의 多樣화와 營農의 自律化를 推進할 것
입니다.

한편 農漁村 綜合施策을 實効性있게 推進해 나가는데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農漁村 開發基金을 新設하고 農漁村
關聯機關의 機能을 再正立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對外協力部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6次計劃이 終了되는 '90年代初에 있어서 世界
속의 韓國經濟座標를 展望해 보면 우리나라는 對外與件變化를
能動的으로 受容하고 持續적으로 輸出을 増大시킴으로써 世界
10位圈以內의 工產品 輸出國으로의 跳躍이 豫想되고, 國際收
支 黑字基調가 定着됨에 따라 對外問題 解決能力이 強化됨으
로써 先進經濟로의 進入을 위한 基盤을 構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太平洋沿岸國과의 協力增進으로 東北亞 交易 및
投資増大를 위한 中核國家 役割을 擔當하며, 韓國民의 海外進
出 擴大로 世界를 向한 國民의 行動半徑이 擴大되고 國際社
會에서 우리의 役割이 크게 増大됨으로써 우리나라經濟의 國
際化가 幅넓게 進展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이와같은 우리經濟의 國際化를 뒷받침하고 先進經濟의 實現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計劃期間中 對外協力部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施策을 推進해 나갈 計劃입니다.

첫째, 商品輸入, 外國人投資, 技術導入의 自由化施策을 一貫性있게 推進하고 知的所有權 保護를 強化하여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킬 것입니다.

먼저, 輸入自由化에 있어서는 特別法の 規制를 段階的으로 撤廢하고 輸入監視, 輸入先多邊化制度를 漸進的으로 縮小하며 關稅 引下年次計劃을 着實히 實踐해 나갈 것입니다.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지속적인 推進을 위하여는 6次計劃期間 中 年間 6~10 億弗 水準의 外國人投資를 誘致하고 '88년까지 自由化率 90% 達成을 目標로 外國人投資 自由化를 年次的으로 擴充토록 하는 한편, 自動認可制의 擴大와 認·許可 등 行政節次를 簡素化하고 個別 法令·指針등을 整備하여 各種 規制를 緩和함으로써 外國人投資環境을 꾸준히 改善해 나갈 것입니다.

技術導入 自由化를 加速化하기 위하여는 事業計劃 調整要求權에 의한 任意的 規制를 止揚하는 등 技術導入에 대한 殘存 規制를 撤廢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著作權, 物質特許,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知的所有權에 대한 法的 保護를 強化하여 尖端技術導入을 促進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金融, 外換, 資本의 國際化입니다.

貿易, 投資 등 實物經濟의 開放體制로의 移行에 맞추어 金融部門에 있어서도 金融自律化和 金融機關의 大型化를 誘導하여 國

內金融機關의 國際化 推進基盤을 더욱 擴充하고 外國銀行 支店과 國內銀行과의 相互補完的 關係를 維持하여 金融產業發展에 寄與토록 할 것입니다.

外換에 있어서는 外換管理體制를 「原則自由，例外規制」方式으로 轉換할 것이며，資本自由化를 위하여는 國際投資信託을 擴大하여 外國人の 間接證券投資를 繼續 擴充하고 直接 證券投資도 制限的으로 許容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國內 保險市場의 開放을 段階的으로 推進하여 外國生命保險會社支店の 進出을 許容하며，外國損害保險會社の 追加 進出도 許容할 計劃입니다.

세째，國際貿易秩序 改編에 대한 對應이 되겠습니다.

計劃期間中 세계 保護貿易主義 緩和와 새로운 交易秩序 構築을 目標로 本格化될 「뉴 라운드」協商에 能動的으로 參與하여 國際自由貿易秩序 回復에 寄與토록 할 것입니다.

네째，太平洋經濟協力에의 先導的 參與입니다.

머지 않아 太平洋地域이 世界交易의 中心地로 登場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經濟發展段階에 비추어 太平洋 協力體 構成의 橋梁的 役割을 遂行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域內 主要先進國 및 開途國과의 通商，投資，技術協力を 보다 緊密히 하여 地域協力の 活性化와 交易의 相互 均衡的 擴大를 圖謀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の 增進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經濟開發 經驗과 技術을 바탕으로 計劃期間
中 開途國의 經濟開發事業 支援을 위하여 「對外開發基金」을
設置토록 함으로써 先發開途國으로서의 役割分擔을 擴大해 나
갈 計劃으로 있습니다.

Ⅳ. 結 語

以上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次計劃期間中 우리나라 經濟
는 最初로 國內貯蓄에 의한 自力成長을 實現하고 經濟 各部
門에서 開放化와 國際化가 實質적으로 이룩되며 產業構造 역
시 高附加價值化가 進展됨으로써 2000 年代 先進經濟로의 移行
을 위한 基盤을 確固히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이로써 兩國經濟는 相互補完關係가 深化되어 高度의 分業構造
를 갖추게 됨에 따라 韓日두나라의 經濟協力은 成熟된 同伴
者時代를 맞이할 것으로 豫想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신 여러분은 韓日兩國 經濟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核心的인 분들입니다.

아무쯔록 日本經濟界 여러분께서 兩國 經濟協力を 보다 活性
化하고 密度있게 推進하는데 있어서 指導的인 役割을 遂行하
여 韓國經濟發展에 積極적으로 寄與해 주실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6次計劃 期間동안의 總量 展望(暫定)

(參考)

	單位	'86	'87	'88	'89	'90	'91	'87~'91 年平均 (%)
• 國民總生產(經常)	億弗	878	990	1,132	1,268	1,402	1,550	12.0
('80 價格)	"	922	988	1,060	1,135	1,212	1,294	7.0
(成長率)	%	(7.0)	(7.2)	(7.3)	(7.0)	(6.8)	(6.8)	(7.0)
• 總投資率	"	30.1	30.4	30.7	31.1	31.3	31.8	31.1
• 國內貯蓄率	"	29.3	30.0	30.7	31.5	32.2	33.0	31.5
• 海外貯蓄率	"	0.8	0.3	0.0	-0.4	-0.1	-1.1	-0.4
• 1人當GNP(經常)	\$	2,101	2,337	2,634	2,913	3,178	3,467	10.5
('80 價格)	"	2,206	2,332	2,468	2,606	2,747	2,896	5.6
• 總人口	千名	41,785	42,383	42,965	43,541	44,117	44,690	1.4
• GNP deflator	上昇率 %	3.0	3.5	3.5	3.5	3.5	3.5	3.5
• 都賣物價	"	2-3	2-3	2-3	2-3	2-3	2-3	2-3
• 經常收支	億弗	0	2	5	10	18	22	-
• 貿易收支	"	3	5	8	13	21	25	-
一輸	"	319	361	411	468	528	590	13.1
一輸入	"	316	356	403	455	507	565	12.3
• 總外債	"	466	480	493	504	509	514	-
• 對外資產	"	121	136	152	171	193	219	-
• 純外債	"	345	344	341	333	316	295	-

日 本 側 質 問 (1)

日 本 長 期 信 用 銀 行
常 務 取 締 役 竹 內 宏

成熟된 社會를 指向하는 具體적인 政策方向에 關해 잘 整理된 說明을 感銘 깊게 들었습니다.

한가지 質問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能率과 平衡의 經濟를 構築하면서 地域間 或은 産業間 成長의 隔差를 是正해 나가는 政策을 쓰면 自然히 資本係數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投資 部門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의 育成이라든가 尖端産業의 育成등으로 効率性이 높아지리라 생각되나 다만 全體적으로 平衡을 위한 投資를 해 나가면 資本係數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點입니다. 그래서 貯蓄을 높여나가겠다, 즉 1991年까지는 貯蓄率을 33%까지 提高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貯蓄率이 높아지지 않으면 經濟收支를 黑字基調로 가져가기가 固難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물론 金融의 自律化라든가 第2金融圈의 縮小등 金融의 効率化등 充分한 配慮가 있으시겠지만 貯蓄率을 높여나가는 政策에 關해서 若干 補充說明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國側 答 辯 (1)

經 濟 企 劃 院
調 整 4 擔 當 官 金 湧

國內貯蓄을 높여 나가면 資本係數도 높아질 것이라는 方今의 指摘은 우리 政府로서도 慎重히 考慮하고 있는 事項입니다.

그러나 現在 推進하고 있는 自由化政策, 近代化政策을 통해 能率과 生産性을 提高시켜 나간다면, 資本係數가 높아지는 것을 相當히 補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最近의 尖端技術, 特히 소프트웨어의 飛躍的인 發達과 勤勞者의 質등을 綜合적으로 생각해 볼 때 資本係數가 높아지는데 따른 投資機會의 增大에 充分히 對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質問인 國內貯蓄率을 높여 나가는 具體的인 政策에 對해 말씀드리면, 우리 政府는 80 年代初부터 惡性인플레이 抑制에 온갖 努力을 기울인 끝에 現在는 인플레이가 거의 없는 年率 2~3%의 物價安定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安定化政策을 바탕으로 金融部門에서의 貯蓄이 劃期的으로 增大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金融部門에 對한 競爭要素 導入을 통해 効率性이 높아지면 貯蓄도 더욱 增大될 것입니다.

政府로서는 지금 國內에서 일고 있는 外債節減運動과 關聯해서 消費生活의 健全化, 投資의 効率性增大등 各種施策을 集中的으로 펴 나갈 計劃이므로 第6次 5個年計劃의 達成을 위한 投資財源의 調達과 成長率을 達成하는데 큰 蹉跌은 없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日 本 側 質 問 (2)

經 濟 團 體 連 合 會
常 務 理 事 三 好 正 也

두 가지 點에 對해 質問하겠습니다.

첫째는 經濟力集中의 緩和와 企業財務構造의 改善과 關聯해서 大 企業의 異業種間企業의 結合과 系列企業間相互出資의 抑制를 해 나가겠다는 說明이 계셨는데, 質問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抑制施策은 어떤 法律을 根據로, 어떤 主管官廳에서, 또 어떤 形態로 推進해 나갈 것인가 하는 點입니다.

그리고 이와 關聯해서 韓國의 獨禁法 내지는 競爭政策에 關해 簡單히 說明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外國人投資의 自由化問題인데 1988 年까지는 90 %의 達成을 이룩하겠다고 하셨는데 90 %의 算定基準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또 個別法令・指針을 整備하여 外國人投資環境을 持續적으로 改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外資導入法등을 改善해서 自由化가 進展되더라도 關聯된 다른 法律, 例컨대 中小企業保護法등 다른 法律이 同時에 緩和되지 않는다면 實質적으로 自由化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日本의 經驗도 있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個別法令・指針의 整備에 關해 몇 가지 具體的인 케이스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側 答 辯 (2)

經 濟 企 劃 院
調整 4 擔當官 金 湧

經濟力集中緩和에 對해 質問하셨는데 關聯法律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金融與信에 있어서는 過多集中을 緩和하기 위해 많은 努力이 거듭되었습니다만, 金融面에서의 努力뿐만 아니라 公正去來法 次元에서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競爭基盤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政策的인 配慮를 해나갈 方針입니다.

主管官廳은 經濟關係 各部處가 되겠는데, 다만 經濟의 効率性이란 側面에서 볼 때 지나친 經濟力集中의 緩和나 抑制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判斷되기 때문에 經濟全體의 効率性을 念頭에 두면서 無理 없는 自律的인 調整을 原則으로 삼아 政府가 間接的으로 誘導해 갈 方針입니다.

다음, 外國人投資自由化 問題와 關聯해서 自由化率을 높여도 各部處에 關係된 法令・規則이 改善안된다면 效果가 없다는 것은 指摘하신대로 입니다.

그래서 第 6 次 5 個年期間中 輸入自由化率과 投資自由化率을 보다 높이기 위해 모든 關聯事項, 즉 中小企業과의 衝突, 稅務上的 衝突등에 있어서 關聯政策과의 連繫를 보다 綿密히 檢討하면서 自由化沮害要素를 除去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8 년까지 自由化率 90 %를 達成한다는데 對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도 製造業部門에서는 거의 90 %線에 이르고 있으며 流通部門을 包含한 서어비스部門은 自由化率이 아직 낮은 狀態에 있습니다.

그래서 第6次5個年計劃期間중에 두가지 目標을 세우고 있으며, 그것은 自由化率을 높인다는 것과 獨占狀態에 있는 品目에 對해서는 輸入自由化와 外國人投資의 効率的인 自由化提高로 競爭力을 擴大하고 아울러 落後된 流通部門의 競爭力을 向上시키면서 이에 對應할 수 있도록 外國人投資도 積極誘導함으로써 90年代에는 全産業의 自由化率이 90%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策定한 것입니다.

좀 더 具體的인 說明을 드렸으면 좋겠으나 擔當者가 아니므로 歸國한 뒤 直接擔當部署인 財務部の 投資振興課에 알아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日 本 側 質 問 (3)

日 本 船 主 協 會
專務理事 三上良造

海運部門의 自由化에 對해 質問하겠습니다.

韓國에는 海運振興法이라는 法律로 輸出品은 韓國船이 船積토록 되어 있어서 日本船이 韓國에서 輸出品을 船積하려면 여러가지 制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同法을 撤廢 내지는 緩和해 주십사 하고 要請한 바 있으나 아직 實現이 안되고 있습니다.

萬若 自由化政策과 關聯해서 同法の 撤廢 내지는 緩和를 考慮하고 계신지의 與否에 對해 支障이 없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韓國側 答 辯 (3)

經 濟 企 劃 院
調 整 4 擔 當 官 金 湧

이 質問 역시 具體的인 答辯을 할 立場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第 6 次 5 個年計劃은 먼저 全體的인 方向을 設定한 다음 現在 各
部門間的 計劃에 關해 具體的인 協議가 進行中에 있으므로 具體的
인 業種을 確定的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는 6 月末쯤 되면
마크로指標下에서 可能性을 推定하고 政策意志로 設定한 70 % 自
由化達成細部案이 具體化될 것입니다.

따라서 海運條項이 包含되어 있는지의 與否는 돌아가서 正確히 把
握한 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日 本 側 質 問 (4)

日本輸出入銀行
理事 中山迪夫

對外政策面에서 第 6 次 5 個年計劃期間중에 對外開發基金을 設置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時期, 規模와 어떻게 運營하실 것인지 될 수 있으면 具體的으로 說明해 주실수 없는지요?

韓 國 側 答 辯 (4)

經 濟 企 劃 院
調 整 4 擔 當 官 金 湧

第 6 次 5 個 年 計 劃 期 間 中 經 濟 力 에 相 應 하 는 經 濟 協 力 을 해 야 한 다 는
前 提 下 에 基 金 設 置 을 準 備 中 에 있 으 며 그 동 안 研 究 討 論 過 程 에 서 여
러 가 지 意 見 이 提 示 되 었 습 니 다 .

그 런 데 그 時 期 와 規 模 , 形 態 에 對 해 서 는 아 직 具 體 的 으 로 確 定
된 바 는 없 습 니 다 . 지 금 까 지 各 部 處 에 서 管 掌 實 施 해 오 고 있 는 開
途 國 에 對 한 有 償 또 는 無 償 支 援 이 있 는 데 이 것 을 統 合 해 서 運 營
해 나 가 는 것 이 바 람 직 스 럽 다 는 생 각 에 서 推 進 하 고 있 는 것 이 這
問 의 背 景 이 니 다 .

時 期 에 對 해 말 씀 드 리 면 財 源 調 達 問 題 라 든 가 機 構 問 題 등 때 문 에 關
係 各 部 處 예 컨 대 外 務 部 , 科 學 技 術 處 , 建 設 部 등 과 綿 密 한 檢 討 가 있
어 야 하 므 로 時 期 는 좀 늦 어 질 수 도 있 습 니 다 .

規 模 는 한 꺼 번 에 큰 規 模 로 하 기 는 어 렵 고 經 濟 力 에 맞 는 範 圍
內 에 서 즉 國 際 收 支 黑 字 의 進 展 狀 態 와 關 聯 해 서 適 正 規 模 를 決 定 해
야 하 고 , 이 를 執 行 하 는 데 에 있 어 서 도 지 금 까 지 各 部 處 가 執 行 해 온
目 的 을 살 려 가 면 서 經 濟 的 , 外 交 的 側 面 에 서 研 究 해 가 게 될 것 인 데 確
定 段 階 에 들 어 가 면 規 模 도 들 어 날 것 으 로 생 각 합 니 다 .

第 13 回 日韓・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報告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 京 本 善 治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으로서 第 13 回 日韓・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第 13 回會議는 지난 2 月 20 日부터 3 日間 日本國 熱海市에서 開催하여 日本側으로 부터 저를 비롯하여 18 명의 代表가, 또한 韓國側으로 부터는 李宜基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을 비롯한 22 名の 代表가 參加했습니다.

이번 會議 議題는,

- (1) 日韓貿易의 增進
- (2) 日韓兩國의 貿易環境 改善
- (3) 其他

3 議題였으나, 이들 議題討議에 앞서 兩側은 自由貿易主義의 維持・強化의 필요성을 再認識함과 더불어 兩國間 貿易의 擴大均衡을 위하여 계속해서 兩業界가 적극적으로 서로 協力해 가야 할 重要性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基本認識下에 各議題 討議를 활기차게 진행, 그 결과 兩側 貿易業界의 交流促進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議題(1)인 「日韓貿易의 增進」에서 韓國側案에 기초하여 다음에 2 가지 점에 대하여 兩側이 合意를 보았습니다.

즉, (1)兩國의 相互補完的인 國際分業協力이 貿易의 擴大均衡을 꾀함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觀點에 서서 「2000年代에 있어서의 日韓經濟協力の 樣相」共同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모든 場所를 통해서 國際分業의 基本路線을 推進함과 더불어 서로 情報交換이나 調査協力 등을 兩側事務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行할 것. 그리고, (2)兩國業界의 相互理解와 情報交換을 시도할 日本의 貿易業界와 駐日本 韓國商社와의 定例懇談會를 開催할 것의 2가지 점입니다.

더우기, 韓國側에서 日本의 主要企業의 1986年度 輸入擴大計劃에 있어서 對韓輸入을 擴大하는데 배려하도록 要請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韓國側이 작성한 「對日輸出擴大可能品目리스트」를 日本側에서 關聯 輸入企業에 배포하여 輸入協力を 要請키로 하였읍니다.

한편, 日本側은 韓國產品 輸入擴大를 위한 問題點과 改善要望事項에 관하여 機械類등 資本財 및 纖維・雜貨・食料品등 消費財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韓國側의 理解와 평가를 받았읍니다.

議題(2)인 「日韓兩國의 貿易環境 改善」에 있어서는 日本側에서 ①駐韓外國商社의 스테이터스 改善問題와 關聯한 駐韓外國商社에 대한 輸出入業許可制限의 緩和 ②韓國의 오퍼去來手數料에 있어서의 실정에 맞는 基準料率의 改定과 認定課稅基準의 明確化 ③自由貿易上 바람직하지 못한 韓國의 輸入先多邊化政策 및 輸入監視品目制度의 改善 및 ④韓國~北美 定期航路의 貨物積取에 대한 日本船社の 웨이버取得에 관한 彈力的인 運營에 대하여 각각 韓國側의 理解와 그 실현을 要請했읍니다. 이들 日本側이 要望한 4개項目에 대하여 韓國側은 國內 實情, 지금까지의 內容等を 說明하고, 韓國政府에 전달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韓國側은 ①日本의 지금까지의 關稅, 非關稅障壁等에 관한 市場開放政策이 韓國產品의 對日輸出擴大에 크게 寄與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指摘하고 今後, 市場開放政策에 있어서 韓國 關心品目에 대하여 더욱 配慮할 것을 要請, 아울러 「日本의 非關稅障壁에 대한 改善要望」 리스터의 提示가 있었읍니다. 그 위에 韓國側에서는 ②韓國은 參差獨航船의 日本港에의 直接寄港 禁止措置의 解除에 관해서도 要請이 있었으며, 日本側은 이들 韓國側要望 2개項目에 대하여 國內現況을 說明, 理解를 求함과 아울러 日本政府에 전달키로 약속했읍니다.

끝으로, 議題(3)인 「其他」에 있어서는 韓國側으로부터 駐在員등의 VISA 更新手續의 遲延이 營業活動上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는 指摘이 있었읍니다. 이 問題는 相互主義原則에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日韓 兩側이 각각 政府當局에 그 改善方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第 14 回會議의 開催時期에 관하여는 앞으로 兩側 事務局에서 協議하기로 하였습니다.

以上, 간단합니다만 第 13 回日韓・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의 概要를 報告드립니다.

第 11 回 日韓・韓日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報告

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中 井 善 夫

第 11 回合同會議는 1985 年 6 月 3 日부터 3 日間 韓國의 江原道 雪岳山에서 韓國側에서 張炳贊委員長을 비롯하여 20 名の 委員과 日本側에서 저를 비롯하여 21 名の 委員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습니다.

會議에서는 具體的인 討議에 들어가기에 앞서 日韓 兩側의 基調 演說이 있었습니다.

먼저, 韓國側으로 부터 「韓國機械工業의 現況」에 관한 韓國機械工業振興會 金龍植常務理事의 報告가 있었는데 20 年間に 걸친 韓日 兩國間 資本・技術協力 및 交易의 數字를 돌이켜 보면서 韓日機械工業協力 現況, 최근의 韓國機械工業 動向, 當面課題에 관하여 說明했으며 매우 有益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日本側에서 日本機械工業連合會 德增肇常務理事의 「日本機械工業의 現況과 展望」에 관한 報告가 있었는데, 이는 1977 年度부터 1985 年度에 이르는 日本機械工業의 生産, 輸出의 推移, 1984 年度부터 1985 년에 이르는 機械工業生産의 輸出額 展望 및 機種別 一般機械生産額 展望에 관한 說明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써, 機械工業의 現황을 서로 理解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議題討議에 들어가서

1. 兩國間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
2. 兩國間 機械類 貿易의 擴大均衡協力
3. 第2回日韓・韓日産業設備輸出協力會議 結果報告에 關하여
4. 兩國業界間 交流增進協力
5. '85 韓國機械展에의 協力에 關하여
6. 其他

의 各議題에 關하여 活潑하게 討議되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議題인 兩國間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에 關하여는 韓國側으로 부터 外資導入制度의 改善內容을 설명하고 日本側은 이를 높이 評價, 韓國側이 희망하는 資本・技術協力 要請에는 相對先을 斡旋하는데 協力키로 했습니다. 또한 日本側으로 부터 對韓投資時 障礙要因 調査結果를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議題인 兩國間 機械類貿易의 擴大均衡協力에 關하여는 日本側으로 부터 日本機械工業連合會가 1984年度에 調査한 韓國部品工業에 關하여 그 結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1984年10月에 실시한 松尾밋선(訪韓國輸入等促進團)에 關하여 報告하고 日本側에서의 韓國機械類常設展示場 設置등, 日本市場開拓強化에 대하여 助言하였습니다. 이어서, 日本側이 과거의 經驗을 기초로 한 工作機械類의 輸出對策과 問題點을 설명, 韓國側은 이것이 앞으로 對外輸出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評價했습니다.

세번째 議題인 第2回 日韓・韓日프란트輸出協力會議의 結果에 關하여 韓國側에서 報告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議題인 兩國業界間 交流增進協力에 關하여는 韓國側으로 부

터의 機種別 交流協力 요청에 대하여 業種別交流 機會를 만들기로 協力하고 특히, 纖維機械視察團에 대하여 1985 年 9 月 大阪에서 개최된 國際纖維機械展 (OTEMAS) 參觀期間中 同세미나에 參加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韓國側의 金型 등 設計技術・製作技術에 있어 企業베이스에서의 技術者 訓練協力を 요청한데 대하여 日本側은 兩國企業의 契約에 기초한 海外技術者研修協會베이스에서의 실시를 推獎하고 韓國側으로부터 구체적인 希望이 제시되면 日本側은 그 對應策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議題인 '85 韓國機械展에의 協力에 관하여는 日本側은 弘報 등 적극적인 協력과 더불어 서울에서의 세미나 개최에도 講師를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韓國側의 輸入多邊化政策에 관한 日本側의 질문에 대하여 韓國側으로부터 現況설명이 있었으며, 日本側으로부터 對中・蘇機械類 交易現況을 설명, 情報를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合同會議 이후의 經過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兩國間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에 관하여는 今年 1 月末 日韓經濟協會의 植谷副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官民合同의 投資環境調査團이 訪韓하고 또한 韓國側에서도 今年 4 月 對韓投資誘致團이 官民合同으로 來日하게 되었습니다.

技術協力에 관하여도 韓國技能工 117 名이 訪日, 研修받고 그 가운데 半數는 機械工業 관련業種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日韓産業設備輸出協力會議에 대하여는 昨年 11 月 서울에서 韓國側의 張炳贊委員長을 비롯하여 26 名の 委員과 日本側에서 저를 비롯하여 25 名の 委員이 참가한 가운데 第 3 回會議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兩國業界間 交流增進協力에 대하여는 昨年 9 月 韓國에서 化學機械視察團이 來日하고 또한 재작년의 懸案이었던 纖維機械視察團도 來日 兩國業界間의 理解를 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6 韓國機械展에의 協力에 대하여 작년 10 月 同機械展期間에 맞추어 개최한 세미나에 日本側에서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 6 回 日韓・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報告

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 秋 田 兼 三

第 6 回 日韓・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에 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合同會議는 昨年 11 月 18 日, 19 日의 兩日間 韓國 서울에서 開催되어 日本側으로 부터 저를 비롯한 12 名과 韓國側으로 부터는 朴龍學委員長을 비롯하여 12 名이 參席했습니다.

同 會議에서는

- 日韓機械翻譯시스템의 共同開發事業
- 2000 年代에 있어서의 日韓・韓日經濟協力の 樣相에 관한 共同研究事業
- 投資協力
- 日韓兩國의 對美貿易摩擦問題
-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에 관하여 討議가 거듭되었습니다.

먼저, 日韓機械翻譯시스템에 대하여는 富士通와 當委員會의 仲介로서 富士通와 韓國科學技術院이 3 個年計劃으로 共同開發하고 있으며, 同事業이 3 年째를 맞이하여 상당한 成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日本側에서 進捗狀況과 그 成果에 관하여 詳細하게 報告되어, 雙方은 이 共同開發事業이 兩國 產業・技術協力を 推進하는데 劃期的인 일이라고 높은 評價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2000年代의 日韓・韓日經濟協力方案」에 관한 共同研究事業에 대하여는 第5回合同會議에서 合意된 研究內容・研究體制에 대하여 兩側에서 再確認함과 더불어 研究期間을 延長하여 早期에 着手하도록 努力하기로 合意했습니다.

세 번째로, 投資協力에 대하여는 韓國財務部 擔當官으로 부터 「改正外資導入法の 要點과 運用」에 관하여 詳細한 說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側에서는 投資協력이 円滑히 이루어지도록 環境을 整備하는데 努力해 주기 바라는 要望이 있었는데, 韓國側에서는 이를 銳意 努力・推進하고 있다는 說明이 있었고, 韓國에서의 外資導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韓國의 發展과 兩國의 繁榮에 크게 貢獻한다는 점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兩國의 對美貿易摩擦」問題에 관하여는 兩側에서 現狀과 對應에 관하여 說明이 있었으며, 兩側은 友好的인 對美關係의 維持가 앞으로도 重要하다는 共通認識에서 自由貿易을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서로 協力해 가기로 合意했습니다.

끝으로, 韓國側으로 부터 來年부터 시작하는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案」의 骨子에 관하여 說明하고, 同計劃의 推進과 관련하여 兩側에서 活潑한 討論이 이루어져, 韓國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同計劃의 重點施策에 따라 兩國이 協力關係를 더욱 공고히 해 가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또한, 다음 合同會議은 今年 가을 日本에서 開催될 豫定입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第 4 回 日韓・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報告

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渡邊禮之

日韓・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의 1985 年度 活動狀況과 1986 年 3 月 14 日 서울에서 開催된 第 4 回合同會議의 報告를 하겠습니다.

昨年は 中小企業政策이 韓國政府의 政策 가운데서도 가장 重點을 둔 점도 있어서 活潑한 活動이 있었습니다.

먼저, 85 年度 經濟交流關係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商工會議所 關係에서는 那珂湊, 益田, 下關, 岡崎, 福岡, 鶴岡, 甲府, 大津 등의 商工會議所가 視察, 輸入促進, 研修 등 多様な 목적으로 서울, 釜山, 馬山 大邱, 기타 지역을 訪問했습니다. 商工會議所 이외에서도 下關에서 水産物輸入促進團이 派遣되었고, 總計 20 回 150 餘名에 이르고 있습니다.

韓國에서는 昨年 5 月末 官民合同의 對日輸出促進團을 비롯하여 見學, 交流 등의 목적을 위하여 85 回 1,100 餘名の 中小企業人이 日本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으로 昨年の 第 3 回合同會議에서 결의된 세미나 開催에 대하여 報告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今年 3 月 13 日 韓國中小企業 協同組合中央會 會議場에서 約 80 名の 韓國中小企業人이 모인 가운데 제가 「日本企業의 技術開發 및 經營合理化의 成功事例」라는 題目으로 自의 經驗과 함께 얘기했는데 韓國의 여러분들께 參考가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今年 3月 14日 서울市內 호텔會議室에서 開催된 第4回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에 대하여 報告하겠습니다. 韓國側은 韓在烈委員長以下 50名, 日本側은 저를 비롯한 9名이 參加하여 討議하였습니다.

韓國側 議題는,

- (1) 韓日中小企業民間經濟協力團體간의 協力
- (2) 韓國技能工의 日本派遣研修 協力
- (3) 韓國의 對日 輸出促進團 派遣에 대한 協力

또한 日本側 議題는,

- (1) 韓國內 信用調查機關의 整備 育成
- 이었습니다.

議題(1)에 관하여는 현재 金型, 家具, 鍍金, 洋服, 電氣, 自動車部品, 通信機器, 플라스틱등 組合이나 協會가 각각 協力關係를 갖고, 定期的으로 協議會나 懇談會를 開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金型과 家具에 관하여는 昨年 姊妹都市關係가 成立되어 韓國側은 앞으로 더욱 姊妹關係를 늘려 가고 싶다는 意向입니다. 이에 대해 日本側은 韓國側의 意向을 關係團體에 전달하여 協力を 要請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議題는 韓國技能工의 研修에 관하여는 1984年度 31名에 이어 85年度는 116名을 受容, 韓國에의 技術移轉에 協力해 왔습니다. 研修의 成果에 대하여는 韓國側에서 多大한 好評을 받아, 日本側의 노력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研修를 要請한 數에 비하여 받아들인 數가 적으므로 더욱 日本側에 받아들이는 數를 늘

리도북 要請이 있었는데 日本側에서는 受容치 못했던 理由의 半은 韓國側에도 있으므로 事前 체크등의 協力을 바란다는 뜻을 表明했습니다.

다음 議題인 韓國의 對日輸出促進團 派遣에 대한 協力は 이미 日本商工會議所가 日本貿易振興會와 協力하여 該當하는 地方商工會議所에 韓國側의 計劃을 通報하여 協力하도록 措置했고 目下 遺漏없도록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回答했습니다.

日本側의 提案인 韓國內 信用調査機關의 整備 育成에 관하여는 韓國側의 説明에 따르면, 현재 信用保證基金法에 근거를 두어 設립된 政府系統의 特殊法人인 「信用保證基金」과 民間系統의 「새한 데이터뱅크」가 信用調査를 하고 있음이 判明되었습니다.

日本側으로서는 韓國側이 기대하는 投資促進을 위하여는 投資先의 調査를 短期間에 正確하고 充分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調査를 할 수 있도록 韓國企業의 協力을 要請했습니다.

계속하여 韓國金型工具工業協同組合,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聯合會, 韓國鍍金工業協同組合,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 韓國通信工業協同組合을 代表하는 分들로 부터 發言이 있어, 이미 日本側과 姉妹關係를 맺고 있는 곳은 더욱 關係를 깊게 하려 하고, 關係를 맺지 않고 있는 곳은 協力關係를 맺고 싶다는 뜻이며, 日本側은 각각 關係者에게 傳하기로 하였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次期 會議開催地는 日本國內입니다.

韓國의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說明에 對한 意見과 提案

日 商 岩 井 (株)
會長 植田三男

日商岩井의 植田은시다.

金湧擔當官님이 說明해 주신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 대
해서 多少의 意見과 提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說明을 듣고보니 이번 計劃은 貴國이 2000 年代에 實現코
자 하는 未來像, 즉 「活力과 餘裕있는 社會」 「定義와 安定된
社會」 및 「地域間・部門間이 均衡있게 發展된 社會」의 創造를
基本으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4 가지 점을 重要課題로 設定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自主와 開放, 能率과 合理性을 基盤으로, 첫째 「經濟社會의
制度發展과 基本秩序의 定着」,

둘째로, 地域別 特性에 맞는 產業發展과 生活便宜施設의 均衡있는
擴充에 의한 「活力있는 地域社會의 發展」,

세째, 두터운 中產層의 形成과 低所得層의 生活向上을 통한 「社
會의 衡平과 福祉의 增進」,

네째, 「産業構造의 改編과 技術立國의 實現」으로 産業能率을 翻期
的으로 높인다는 4 가지 點입니다.

이에 대해 굳이 私見을 말씀드릴다면, 同計劃에 「衡平」과 「福
祉」의 概念이 들어있다는 點을 높이 評價하고 싶습니다.

「衡平」은 社會에 있어서는 富의 偏在의 是正을 말하며, 나아가

서는 地域間 隔差의 是正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들 企業에게 있어서는 大企業에의 集中을 排除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곧 中小企業의 育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貴國과의 交流가 시작된 以來, 機會 있을 때마다 中小企業 育成에 의한 貴國의 産業構造의 健全化를 強調하여 왔습니다만, 貴國의 大方針 속에 이것이 優先日程으로 다루어진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福祉에 관해서는, 알고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日本人도 戰後 數年間 「福祉」라는 말을 잊고 生産과 輸出에만 힘을 쏟았던 時期가 있었습니다.

제가 記憶하기에는 日本에서 福祉란 말이 처음 나돌기 시작한 것은 1973 年の 일로, 政府가 從來의 高度成長 一邊倒 政策을 바꿔 福祉를 充足시키는 轉機가 되는 해를 만들기 위해 「福祉元年」이라고 말한것이 그 始初였다고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福祉의 充足을 꾀하는 나머지 公共部門의 活性化가 物價의 昂騰을 招來하여, 實際로는 福祉의 實現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다시 「福祉 零年」으로 되돌아 갔던 經緯도 있었습니다.

如何튼 저는 여기서 福祉를 내걸은 貴國의 計劃을 통해서 着實한 貴國의 進歩와 發展을 엿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提案하고 싶은 것은, 貴國이 計劃을 實現하시는데 저희들도 되도록 協力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適當한 時期에 貴國을 訪問하여, 實地로 더 詳細한 計劃內容을 調査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詳細한 事項은 追後 關聯機關等과도 議論한 뒤 別途로 알려드리
고자 하니, 그때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第 6 次 5 個年計劃 調查團派遣 提案에 對한 答 辯

全國經濟人聯合會
常務理事 曹圭河

우리의 第 6 次 經濟社會開發計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것은 꼭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開發計劃이 成功的으로 遂行되려면 韓日經濟協力은 不可缺할것이라 생각됩니다.

協力方案을 찾기위한 調查團派遣을 환영합니다.

開發計劃이 實效를 거두려면 韓國의 對日輸出增大, 部品을 포함한 機械產業에서의 韓日間 水平分業의 發展, 日本의 對韓技術移轉과 投資促進이 더욱 活潑하게 전개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를위해 民間企業들이 무엇을 어떻게 協力할 수 있는가를 具體的으로 하나하나 찾아 協力해가야 할것이며, 民間協力を 원활히 하게하는 政策레벨의 協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당부하고 싶은것은 第 6 次 經濟社會開發計劃에 日本民間企業이 적극 參與하여 주심사하는 것입니다.

投資環境調查團 活動報告

山一證券(株) 會長
植 谷 久 三

昨年 4 月 第 17 回合同會議에서 提案받은 對韓投資環境調查團 活動에 關하여 報告하겠습니다.

調查團은 今年 1 月 27 日부터 2 月 1 日에 걸쳐 韓國의 서울시와 釜山市를 中心으로 한 各地를 訪問하고 期待만큼의 成果를 올릴 수 있었읍니다.

調查團 活動에 대하여 韓日經濟協會를 비롯하여 擔當官廳, 關聯經濟團體로 부터 官民이 一致하여 協力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도 韓國이 全國家的인 投資誘致에 거는 熱意의 나타남이라고 우리 團원들은 느꼈읍니다.

調查團 報告書의 全文은 兩國關係機關에 이미 別便으로 傳達했읍니다.

이 報告書는 調查團에 參加한 民間 여러분의 意見을 中心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製造業, 商社, 金融의 各業務의 第一線에서 海外投資를 擔當하고 계신 立場에서 상당히 솔직한 意見을 記述하고 있습니다.

報告書에 관하여 간단히 紹介하겠습니다.

첫째, 1984 年 以後 韓國에 대한 外資의 導入에 관한 法令의 改正으로 投資環境이 制度面에서의 改善은 顯著합니다. 그러나 改善效果를 인으려면 今後 細部的으로 다룰 必要가 있으며 效果가 나타나려면 약간의 時間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實効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民間主導型 비즈니스에 철저한 協力關係 構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尖端技術 移轉의 重要性은 누구나 認定하는 점인데, 이미 現段階까지 발전한 한국경제는 產業基盤의 強化를 꾀하기 위하여 底邊產業의 振興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도 이미 制度面에서의 改善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底邊產業을 담당하는 中小企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韓日兩國의 經濟界가 協力해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投資成功 要素로써 相對先의 經營理念에 관한 서로의 충분한 理解와 事業에 관한 事前의 綿밀한 調査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調査機關의 充實, 企業內容 開示制度의 改善이 더욱 더 要望 됩니다.

以上 簡單히 報告드렸습니다.

對日投資誘致團 派遣 協力(提案)

韓國貿易協會
常務理事 李 相 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85年3월에 파견한 我側の 投資誘致團 순회 설명회가 성공리에 끝날수 있도록 積極 協調해 주신 日韓經濟協會등 有關機關 및 參加業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我國政府는 外國人 投資事業에 대해서 廣範圍한 開放政策을 原則으로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을 위한 關係法令 改正, 整備作業을 꾸준히 實施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改善事項의 對日 弘報를 위해 '85年3월에 이어 今年에도 4月14日~23日까지 10日間 東京, 하마마쓰, 히로시마, 후쿠오카등 4個都市에서 巡廻說明會를 開催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今年에는 昨年과 달리 大都市보다는 地方 中小都市에 力點을 두어 現地企業人에게 對한 投資의 MERIT와 改善된 韓國의 投資環境事項을 直接 傳達코자 합니다.

또한 同 誘致團에는 韓國政府側の 演士外에도 日本企業과의 合作 및 技術協力등의 交流를 希望하는 我側 中小企業 關係者가 다수 包含되어 있어 이들이 日本側 有關企業과의 商談等 意見 交換을 할 수 있도록 說明會와는 별도로 懇談會도 開催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라 我側の 投資 및 技術協力 希望業體의 名單 및 概要에 관한 諸般 資料는 이미 日韓經濟協會에 發送, 弘報 및 希望企業의 斡旋을 依賴한바 있습니다.

現在 主管機關인 H韓經濟協會와 JETRO 및 日本商工會議所가 수
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日本財界 代表 여러분께서도 積極的인 關心을 기울여 주시길 이자
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最近의 엔貨強勢, 油價下落, 國際金利引下等 周邊 經濟與件의 變
化로 韓國의 投資環境이 점차 好轉되고 있는 이때, 관심있는 日本
企業이 多數 參加하여 說明聽取 및 意見交換을 갖는 일은 兩國
에 共同利益이 되리라 확신하며 거듭 積極的인 參與와 協力을 期
待합니다.

감사합니다.

「對日投資誘致團 派遣時 協力要請」에 대한 答辨

日商岩井(株) 會長
植 田 三 男

본 뜻을 충분히 理解했습니다. 貴國의 「投資誘致」에 대한 熱意에 대하여 심심한 敬意를 포함과 더불어 誘致團의 活動에 대하여는 當協會로서 可能な 限 協力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日本側 事務局으로부터의 報告는 同誘致團 派遣日程이 다가 왔기 때문에 이미 그 受容스케줄이 거의 定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豫定된 日程가운데 보다 많은 成果를 거두기 위한 特別한 希望事項이 있으면, 그 對應에 관하여 協力할 생각입니다. 成功을 빕니다.

部品開發協力미션의 交流에 대하여

川崎重工業(株) 會長
梅田善司

日韓兩國은 많은 産業分野에서 긴밀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요소가 이것을 加速시키고 있습니다.

즉, 日本에서는 소위 「世界속에 日本」이라고 하는 視點으로 부터 産業構造를 再考하고 있으며, 한편 韓國에서는 貿易構造의 高度化를 목표로 하여, 部品工業의 育成이 크로즈 업 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급격한 外換變動은 日韓兩國이 相互補完的인 國際分業의 전개에 拍車를 가하는 原動力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民間經濟界에 있어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最大限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한 노력의 一環으로서 우리들은 금년 가을을 목표로 하여 部品開發協力미션의 韓國派遣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日本機械工業聯合會가 지난 해 행하였던 調査에 의하면 日本의 部品生産者 및 部品需要者の 太半은 韓國의 部品工業의 實態를 모릅니다. 調達possible한 部品の 有無도 모릅니다. 品質이나 購入의 繼續性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疑問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韓國部品工業의 實態를 直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調査團 派遣의 趣旨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韓國에서 본 日本市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日本의 部品生産者나 部品需要者가 무엇을 必要로 하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만일 韓國側으로 부터도 部品協力の 미션이 訪日하게 된다면, 이 分野에 있어서의 兩國의 産業協力は 보다 큰 成果를 올릴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部品開發協力및 産交流에 對하여 (答辯)

韓 國 火 藥 工 業
常 務 理 事 金 正

韓日兩國은 지난 20年間 甚밀한 經濟協力을 해왔으며, 이 같은 協력이 世界第二의 經濟大國 日本과 NICs 韓國의 탄생에 커다란 寄與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兩國經濟關係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며, 現在 貿易不均衡이라는 최대 懸案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貿易不均衡은 縮小均衡이 아닌 擴大均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兩國의 國際分業에 의한 産業協력을 통해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 양국관계자들의 콘센시스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난해 9月이후 円高局面을 맞아 電子・機械産業을 중심으로 對日部品 輸出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長期的인 兩國間 經濟協력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方向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一過性을 지닌 円高局面 타개를 위한 短期對策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兩國産業界가 보다 長期的인 안목을 갖고 今後 産業協力の 定着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日本은 보다 積極的인 國內産業調整, 對韓産業技術協력을 促進해야 될 것이며, 韓國도 이를 受容할 수 있는 태세를 積極적으로 整備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觀點에서 이번 日本측이 提案한 部品開發協力調査團의 韓

國派遣計劃은 크게 환영할 만한 것이며, 때마침 韓國에서도 部品
産業育成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成果가 기대됩
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계획이 今後 바람직스러운 兩國間産業協力の
커다란 轉期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確信합니다.

마지막으로 韓國側 部品協力및손의 訪日時에도 적극적인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技術移轉窓口 活性化(提案)

巨洋商事株式會社

社長 李 尙 秀

지난 1983年4月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15回 民間合同會議에서 兩經濟協會에 技術 斡旋 창구를 設置키로 合意한 바있습니다.

이후 我側에서 20餘件의 業體希望事項을 취합, 日本側에 보내어 斡旋等 協力を 要請한 바도 있습니다.

技術協力問題는 어디까지나 커머셜·베이스에서 進行된다는 原則위에서 당시 우리側 技術協力要請에 대한 兩國 業體間의 협상추진에 問題가 있을 때 또는 兩國의 企業이 상호 技術협력 相對를 찾지 못할때 兩側에서 도와주는 窓口가 필요하다는 意味에서 창구설치를 提案했던 것입니다.

向後 兩國間의 技術協力は 제반 環境과 與件上 더욱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므로 此際에 이미 設置된 동 창구를 活性化 할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85年12月 兩國 政府間에 開催된 第18次 韓日貿易會談時에도 兩經濟協會가 技術協力 창구로 指定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86年1月 日韓經濟協會의 社團法人 승격으로 兩國 政府 財界의 經濟協會에 대한 期待 또한 클것으로 思料되는 바 日本 財界 여러분께서 同 窓口에 대한 支援에 協力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技術斡旋窓口 活性化에 관하여 (答辨)

川崎重工業(株)

會長 梅田善司

日韓・韓日兩經濟協會의 技術斡旋窓口를 活性化하려는 提案에는 저회들도 전면적으로 賛成합니다.

1982 年에 窓口業務가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일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兩國 民間의 技術協力이 該當 企業間의 끊임 없는 노력에 의해 円滑히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되나, 그것도 斡旋窓口의 運營 그 자체에 더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中堅・中小企業인 경우, 技術移轉니즈를 갖고 있으면서 알맞은 相對企業을 찾는 調査機能이나 충분한 交渉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있겠고, 이러한 경우가 말로 兩協會의 斡旋窓口의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中堅・中小企業의 요청을 찾아 내는 것을 포함하여 斡旋業務의 완성화 방법을 兩事務局에서 검토하여 성과를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技能人力研修 擴大를 위한 協力(提案)

中小企業振興公團
東京事務所長 尹東善

오늘 韓日兩國의 經濟界代表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하신 第 18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本人이 韓國中小企業 技能工의 日本派遣 研修와 關聯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날 日本經濟의 활기찬 發展을 이룩함에 있어 그 指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不透明해지는 國際環境속에서 日本의 經濟的 位置는 開發途上國을 비롯한 世界各國의 魁鑑이 되고 있으며 最近엔 貨價値의 上昇으로 나타난 不利한 影響에도 賢明하게 對處하므로써, 특히 相互依存性이 높은 東아시아地域에 대하여는 擴大 均衡發展의 動因으로 作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두 차례의 兩國 頂上會談을 契機로 經濟 뿐만 아니라 政治・文化的인 活潑한 交流를 통하여 緊密한 紐帶關係를 形成하여 나날이 共同 繁榮을 向한 새로운 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4 年 11 月에 시작된 韓國技能工의 日本 派遣研修事業은 兩國間 産業技術協力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되고 있으며 그동안 3 차에 걸쳐 147 名이 日本의 各企業의 生産現場에서 研修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研修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研修受容企業選定の 어려움, 研修生 受容上の 問題 등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日本政府를 비롯한 研修生受容協議會 등의 研修關係機關 그리고 研修受容企業이 積極的으로 協調해 주신데 힘입어 研修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제 同 研修事業이 3차례의 研修를 推進하는 동안 서서히 本 軌道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兩國 協力關係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좋은 契機가 되고 있음을 確信합니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모든 國家의 經濟發展은 一定한 段階를 거쳐 成熟되어 가는 것이며 上位段階의 國家와 下位段階의 國家間에도 相互 交流에 의한 協力の 必要性은 恒常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韓國과 같은 新興工業國이 工業化 促進을 위해 先進工業國으로부터 基礎産業技術을 移轉받는 일은 不可避한 過程이며 이는 比較優位の 立場에서 國際分業의 効率을 增進시키므로써 相互利益을 同時に 追求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機會에 研修를 마치고 歸國한 研修生들이 日本研修 期間동안 보고 느낀 所感, 成果등 意見을 綜合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言語問題입니다. 어느누구든지 外國에 滞在하는 동안 意思疎通에 隘路가 있듯이 研修生들의 日本語 能力이 不足함으로 인해 發生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日本政府와 研修受容企業에서 세심한 配慮와 親切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感謝하고 있습니다.

研修實務를推進하고 있는 저희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는 이를 勘案하여 研修派遣하기 前에 國內에서 一定期間의 日本語教育을 實施하는 등으로 이러한 隘路를 打開하기 위해 最大限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研修生이 본 日本의 生産現場은 훌륭한 組織의 標本이었다고 합니다. TQC, 小集團活動 등으로 勤勉誠實하게 일하는 従業員들의 勤勞倫理, 職場規律을 直接 體得하므로써 오늘날 日本의 發展은 이러한 日本人의 內的인 團結과 積極的이고 透徹한 職業意識 그리고 勤勉한 生活態度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째로, 研修를 마치고 歸國한 研修生들은 自體的으로 定期的 會合을 가지는 등 相互 交流를 持續함으로써 日本의 現場에서 배우고 느낀 知識과 經驗을 誠實하게 자신들의 役割에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째로, 數個月동안 日本人과 함께 일하고 生活하면서 技術技能의 習得으로 自己開發은 물론 兩國 젊은이들간에 相互 人間關係의 成熟을 통하여 새로운 紐帶를 構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研修生들은 現場生活을 통하여 이웃 日本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日本人에게는 親密한 韓國人象을 심어준 좋은 契機가 되어 研修를 마치고 歸國한 後에도 書信往來 등 相互 交流를 持續하고 나아가서는 兩國 業體間에도 去來先 確保, 技術提携로 이어지는 새로운 協力關係를 摸索하게 되었으며, 日本의 研修受容企業에서는 繼續的으로 研修生을 派遣해도 좋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5年 12月 埼玉県の 大塚ポリテク(株)에 派遣한 韓國의 泰成
고무化學(株) 研修生の 경우, 본래 3個月 日程으로 研修를 받던 중
韓國業體의 要請에 따라 研修期間을 2個月 延長시켜 준 配慮는 이
러한 協力の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韓國技能工의 日本派遣研修는 兩國間の 經濟協力
增進이라는 次元 以外에도 現地交流를 통하여 相互理解와 友好
增進에 큰 役割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共同協力を 바탕으로
日本派遣研修의 結果를 持續적으로 發展시키기 위해 저희 中
小企業振興公團에서는 1986年度 研修對象者를 募集하여 424名의
研修對象者 名單을 日本政府에 提出한 바 있습니다.

그 對象者는 中小企業體에 勤務하고 있는 高等學校 卒業水準의 젊
은층을 중심으로 日本企業과 技術提携, 資本協力, 貿易去來 등 關係
가 있는 企業의 技能工을 우선 選拔하였고 中小企業體에서 必要한
一般的인 技術分野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研修推進過程에
서 日本側이 要請한 韓國의 研修申請企業의 現況등 具體적인 內容
이 追加로 包含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兩國政府間 會議를 통해 韓國側이 要請한 바 있
는 研修擴大를 위한 努力이 올해에도 充分히 成果를 거둘 수 있
도록 여러분의 積極적인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具體적으로 말씀드리다면, 兩國間에 合意한 研修規模를 數年間に 걸
쳐 1,200名線에 接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推進實績으로 보
아 1986年度부터는 300名以上이 研修派遣되기를 希望하며 수용에
따른 諸般與件을 考慮하여 年2回로 나누어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에서指摘한 研修生 日本語 教育을 비롯하여 出國準備
를 위한 韓國側 事情을 勘案하여 적어도 研修派遣 2~3個月前에
는 研修確定者 名單이 韓國側에 接受되기를 希望합니다.

끝으로, 本人은 兩國間의 産業技術協力을 통한 人的交流의 擴大가
善隣友好關係의 發展에 매우 중요하며 韓日 兩國이 共同繁榮으로 나
아가야 할 21世紀를 準備하면서 眞正으로 信賴하고 相扶相助하는
同伴者的 姿勢를 構築하는 契機가 되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本 研修事業의 圓滑한 推進을 위하여 繼續적인 協調를
付託드리며 지금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
를 표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韓國技術者の 研修 受容에 關하여 (答辯)

川崎重工業(株)會長
梅 田 善 司

지금 韓國中小企業振興公團의 尹東善氏로부터 제안받은 兩國 政府 間 合意에 기초한 韓國 技能工의 日本企業 研修 受容에 關하여는 技術習得은 물론, 日本과 日本人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日本人에 대하여 韓國人을 理解시키고 있다는 말씀은 本件이 日韓 兩國이 相互理解를 위하여 착실히 공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研修生을 受容한 日本側 企業을 비롯하여 日本側 關係者の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이 研修生 受容計劃도 이미 3 회째 실시하여 日本企業에게 受容을 요청하는 점을 포함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으며 그 가운데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技術研修에 關하여는 選拔된 우수한 韓國 젊은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점도 있어 成果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限定된 期間內의 研修이며, 습득한 技術에 대하여는 歸國후 더욱 研鑽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먼설편에 따라 技術導入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取得한 技術의 대부분은 未來를 향하여 커다란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日本語의 습득에 關하여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항상

되면 더욱 성과가 크게 될 것입니다. 만약, 日本語를 거의 할 수 없어 孤獨感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모처럼 國家와 企業으로부터 恩惠를 입어 海外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거꾸로 성과 없는 유감스런 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受容한 研修生의 數를 늘리고 싶다는 意向에 대하여는 충분히 理解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韓國側의 協力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受容하는 것이 成立되지 못한 이유는 日本側과 韓國側에 각각 있으며, 그 比率은 半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兩側의 理由를 나눠보면

日本側 理由는

- (1) 研修를 희망한 技術은 歐美企業과 提携한 技術으로써 契約上 第3者에게 줄 수 없다.
- (2) 요청받은 技術이 顧客과 共同開發한 것으로써 營業上 第3者에게 줄 수 없다.
- (3) 社内事情 기타

韓國側 理由는

- (1) 受容을 요청받는 企業이 이미 韓國의 다른 企業과 提携하고 있거나 提携交渉中으로 契約上 또는 營業上 理由로 受容을 할 수 없다.
- (2) 研修希望 技術이 受容 要請先이 아니다.
- (3) 受取處 住所不明
- (4) 受容 決定후 韓國側의 理由로 取消

이상과 같습니다만, 이 가운데 (1)에 대하여는 兩國企業의 지금까지의 提携關係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協力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생각나는 것은 受容企業은 中小企業이 많으며, 從業員의 數가 적은데다가 徹底한 合理化를 한 結果 研修生の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을 한명 붙이는 것은 困難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會社의 從業員들과 같이 作業을 하면서 工夫하고 質問이 있을 때는 所定の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이것은 受容을 付託했을 때 뒷바라지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억지로 要請해서 受容케 한 結果 이니만큼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實務上の 經驗을 말씀 드렸음니다만 이러한 好評받는 計劃을 앞으로도 成功裡에 推進하기 위해 韓國側의 協力과 理解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訪日輸出促進團派遣에 대한 協力(提案)

(株) 元 伸 實 業

社長 朴 魯 聖

오늘 韓日 兩國 財界 代表者가 參席한 가운데 韓國輸出促進團 派遣에 대해 말씀드릴 機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익히 알고 계신바와 같이 1984年 日本의 ‘ 訪韓國輸入等促進團 ’, 訪韓을 계기로 兩側에 市場協議會가 構成된데 이어서 昨年 慶州에서 開催된 第17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韓國側의 輸出促進團派遣 提案 및 日本側의 積極的인 協力 約束下에 4회에 걸쳐 訪日 輸出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한 바 있습니다. (兩側 事務局: 韓日經濟協會 및 日本貿易振興會)

同 促進團은 東京, 大阪等 大都市뿐만 아니라 과거 市場開拓活動이 다소 疎忽했던 중소도시에서도 積極的인 販促活動을 전개하였으며, 總 巡訪都市는 23個에 達하였습니다.

‘85 輸出促進團活動을 綜合해 볼때 적지않은 改善을 要하는 問題點들도 指摘되었습니다만, 總 3,285 件에 달하는 商談活動을 통해 실질적인 貿易不均衡改善에 기여를 하였고, 특히 獨自的인 채널을 갖지못한 中小企業에게 日本市場進出을 위한 폭넓은 機會를 부여하였으며, 韓國企業關係者에게 對日市場開拓의 重要性 弘報 및 輸出 마인드 振作에 크게 寄與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成果를 바탕으로 지난 2월 3일 日本에서 있었던 兩側 事務局會議에서 '86 輸出促進團派遣計劃(別添)을 相互 檢討, 確定하고, 現在 同計劃을 推進中에 있습니다.

同計劃의 概要는 派遣回數를 總 6 회, 專門業種別 소규모 및 新 構成 및 中小企業 위주로 個別構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大都市보다는 韓國과 접촉이 적은 有望 地方都市를 中心으로 開拓活動을 전개할 計劃입니다.

이같은 活動이 成功的으로 遂行되게끔 우리側에서도 최대한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日本 財界여러 분께서도 商談場確保, 實質的인 BUYER 동원을 위한 弘報 및 有關機關의 協調등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關心과 협조는 訪日 輸出促進團의 活動을 가일층 効率的으로 遂行케 하며, 兩國間 産業協力の 增進과 실질적으로 兩國間의 貿易이 擴大均衡의 軌道에 오르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된다고 確信하며 以上으로 本人의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86 韓國 訪日輸出促進團 派遣 計劃

次數	期	間	規	模	業	種	地	域	備	考
1 次	’86. 3. 3-9		約 20 名		農水產, 消費財		福岡, (大阪), 名古屋		大阪지역 공식 商談없음	
2 次	’86. 4. 14-23		約 20 名		投資誘致		東京, 浜松, 廣島, 福岡		財務部 후원, 韓日經濟協會 주관	
3 次	’86. 5. 25 ~ 6.1		約 100 名		電氣機械 一般機械 基礎資材 農水產 織 維 消費財		東京, 大阪 " " 名古屋 " " " " 下關 " " " " 神戶		1 個 業種當 20 名 5 個業種 × 20 名 = 100 名	
4 次	’86. 7. 7-13		約 20 名		消費財		東京, 仙台, 札幌		東京地域 공식 商談없음	
5 次	’86. 9. 8-14		約 30 名		農水產, 織維		新潟, 富山, 金澤			
6 次	’86. 11. 17-23		約 20 名		消費財, 農水產		長崎, 熊本, 鹿兒島			

(註) 1. 第 2 次 投資誘致團은 日韓經濟協會 주관으로하고, 日韓市場協議會가 支援한다.

2. 第 3 次 및 5 次의 일정은 5 月 29 日 부터 하루미 國際貿易센터에서 開催되는 東京 연구소와의 관련으로 5 月 25 日 부터 派遣한다.

3. 地方은 계속 일본상공회의소등의 協力を 강력히 要請한다.

4. 大韓貿易振興公社, 韓國貿易協會의 役割에 대해서는 통역, 상담회 및 기타 행사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韓國輸出促進團派遣에 대한 協力 (I)

丸紅(株) 取締役

山 田 實

새로운 日韓關係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日韓兩國에 市場協議會가 設立된 이래 이 協議會의 役割이 날로 增大되고 있다는 것은 關係者의 한사람으로서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昨年에는 貴國으로 부터 輸出促進미션이 네번 來日하셨습니다, 今年에는 投資미션을 포함 專門業種別로 6回 派遣할 것으로 合意를 했으며, 이미 第1回미션은 지난 3월에 來日, 무사히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歸國하셨습니다.

日本市場을 적극적으로 開拓하고자 하는 韓國側의 熱意에는 항상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미션의 成果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日本側도 韓國側의 熱意에 보답할 수 있도록 今年의 對日輸出促進미션의 受容態勢에 만전을 기하여 意義있는 미션이 되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日韓市場協議會, 同協議會 事務局인 日本貿易振興會가 最大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의 經濟環境을 보아도 엔貨 강세가 定着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韓國產品의 對日輸出面에서는 絶好의 時期이고 이들 미션이 昨年이상의 効果を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今年의 對日輸出促進미션은 지금까지 接觸이 적었던 有望 地方都市를 重點的으로 巡廻하게 되는데 폭넓은 交流促進에 의해 전혀 새로운 顧客과의 商談도 이루어질 것이며 各地에서 커다란 反

嚮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相互의 노력에 따라 日韓兩國의 貿易이 圓滑히 擴大均衡을 이루어 나가도록 祈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韓國輸出促進團派遣에 대한 協力 (II)

日本貿易振興會 理事
村岡邦男

日本貿易振興會의 理事를 맡고 있는 村岡입니다.

이미 소개가 있었음니다만, 韓國으로 부터 派遣되는 輸出促進미션에 대하여 JETRO는 日本側 窓口인 日韓市場協議會의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 協議會의 멤버 여러분의 協力을 얻어 이 미션에 대한 協力을 해 왔음니다만, 조금전의 말씀가운데 지금까지의 미션派遣에 대해 韓國側이 成果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기뻐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1985 年을 돌이켜 보면, 5 회에 걸친 미션을 통해 韓國으로 부터 計 277 社 364 名의 비즈니스맨을 모셔, 東京, 大阪는 물론 북으로는 北海道 札幌로 부터 남으로는 九州의 福岡, 長崎까지 日本全國 13 都市에서 JETRO의 各地域 貿易情報센터를 통해 3,829 件에 이르는 商談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86 年度의 受容問題에 있어서는 지난 2 月 3 日에 東京에서 韓日・日韓兩市場協議會의 實務者會議가 개최되어 12 月까지 5 회에 걸쳐 미션을 派遣・受容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受容에 대하여 兩 멤버사이에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교환을 했으며, 이들 반성을 토대로 兩者가 改善의 노력을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받아 3 月 19 日에는 兩協議會의 공동주최로 「韓國製品對日輸出促進세미나」가 서울에서 開催되었는데 앞으로의 미션의 成果를 높이고 韓國企業의 여러분들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日本

에 오시는 韓國企業의 여러분께

- ① 사전에 日本市場을 研究해 주실 것
- ② 팔리고 하는 自社製品등에 대해 샘플 및 카다로그를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과 프라이스·리스트등 輸出商談에 필요한 情報을 제공해 주실 것
- ③ 商談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取消 또는 變更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

등의 부탁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日・韓雙方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다 더 經濟交流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兩 協議會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事業은 韓國側이 對日輸出促進의 노력을 스스로의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어 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貴重한 것이며, 더우기 이러한 노력과 행동이 지금까지 對日輸出의 經驗이 없는 韓國의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머리가 숙여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韓國의 노력에 대하여 JETRO를 비롯한 日韓市場協議會의 멤버 各社는 앞으로 可能한 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 2年째를 맞는 今年은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공부를 하여 보다 成果를 올릴 수 있는 效果的인 미션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오니 韓國側 여러분께서도 배전의 努力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韓國의 對日輸出이 조금이라도 促進되기를 마음속으로 부티 기대하는 바입니다.

靑少年交流의 活性化 (提 案)

韓 日 經 濟 協 會
常勤副會長 周永奭

日韓經濟協會의 社團法人化 實現과 더불어 陣容의 強化로 本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活動이 더욱 活潑化 되리라 確信하면서 相互交流의 增進을 通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提議합니다.

즉 昨年 第 17 回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에서의 合意에 依한靑少年交流는 于先 韓國側이 7 月 30 日부터 8 月 5 日까지 男女大學生 44 名을 日本에 派遣함으로써 幕이 올랐읍니다. 韓國大學生日本訪問團은 日韓經濟協會를 비롯한 經團連, 日本長期信用銀行, 山一證券 등 各團體와 企業의 積極的인 協調 德分에 큰 成果를 거둘 수 있었읍니다.

한편 今年 3 月 24 日부터 29 日까지 사이에는 日本의 筑波大學生 56 名이 韓國을 訪問하였읍니다.

이와같은 相互交流를 通해 서로 相對方을 새로운 角度로 認識하게 되었고 相互理解와 友誼增進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韓日 두나라는 서로 協力하고 서로 繁榮해 나가야 할 共同運命體임을 切實히 느꼈다는 것이 訪問에 參加했던 兩側 學生들의 所感이었읍니다.

이처럼 두나라의 將來를 짚어지고 나갈 大學生등靑少年들이 서로 오가면서 理解와 親睦을 敦篤히 하는 것은 兩國間的 友好協力

增進을 위해서 大端히 重要하다는 것은 再言을 必要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靑少年交流를 앞으로 더욱 活性化 시켜 나가기를 提議하
면서 經濟團體와 各企業을 비롯한 日本財界의 倍前の 協調와 積極
的인 後援을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靑少年交流에 관하여 (答辯)

山一證券(株) 會長
植 谷 久 三

지금 韓日經濟協會周副會長으로 부터 靑少年交流에 관하여 提案이 있었읍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昨年度에 실시한 韓國 大學生 44名을 받아들인 것은 靑少年世代의 相互理解를 깊게 하는데 큰 成果를 올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業에는 익숙치 못한 經濟團體로서는 실시하기 전에 과연 成功할 것인지 여부에 다소 불안이 따랐지만, 그 결과는 서로 많이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고 滿足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靑少年交流에 의해 理解와 親善을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周副會長께서 指摘한대로 입니다. 단지, 우리들 事情을 말씀드리면 日韓間에는 官民 모두 靑少年交流의 各種 通路가 있으며 우리가 만약 定期的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그들과의 調整이 필요하게 됩니다. 昨年인! 경우, 國交正常化 20 周年記念事業이라는 趣旨下에 特別取扱으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定期事業이 되면 事情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靑少年交流는 文化交流事業의 範疇에 들며, 經濟團體가 이것을 定期的으로 主催하는 것은 어떤런지 하는 論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資金面이나 人力面의 準備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로서는 靑少年交流의 意義의 크기로 생각해서 부언가 提言 趣旨를 發展的으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이들 障礙를 어떻게 넘으면 좋을까를 檢討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日本側 答辯에 對한 韓國側 코멘트

韓 日 經 濟 協 會
常勤副會長 周永爽

方今 植谷會長께서 本人이 提案한 基本趣旨에 同意해주신데 對해 感謝합니다.

한 가지 添言할것은 經濟協力을 얘기할 때 複合的인 要素가 많이 얹혀져 있다는 事實입니다. 따라서 어느 角度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多國間協力을 얘기할 때 複合的인 表現으로 “소시오 지오 폴리틱스”라 하는데 特히 最近에 와서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소시오 지오 이코노 폴리틱스”라고 합니다.

如何든 靑少年交流가 現在 여러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自然히 文化的인 側面에서 다루어지는 傾向이 普偏化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經濟協力을 위한 靑少年交流”라고 하면 그 趣旨가 더욱 分明해 질것 같습니다.

本人이 이 問題를 提案한것은 우리들 旣成世代가 모처럼 이룩해 놓은 좋은 基盤을 後世에 가셔도 斷絶시킴이 없이 더욱 維持發展시키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며, 韓日國交正常化 20 周年紀念事業이라는 뜻깊은 行事로서 시작된 事業을 더욱 뜻있게 하자는 것임을 理解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 이에 對해 日本側은 “韓國側提案趣旨에 對해서는 全面的으로 贊成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까의 答辯은 否定이 아니라 肯定的인 面에서 다른 團體의 交流事業과의 調和를 꾀하면서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었다”는 要旨의 發言이 있었음.

'88 서울올림픽에의 協力에 관하여 (提案)

山一證券(株) 會長
植 谷 久 三

韓國이 오는 1988年 서울올림픽大會 開催를 향한 準備를 순조롭게 進行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터 듣고 있으며, 진심으로 慶賀하여마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지난 1964年 東京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올림픽大會이며, 가까운 이웃 나라인 日本으로써는 本大會가 成功裡에 실시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에 대한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日本政府는 韓國政府에 協力을 約束했습니다. 民間에 있어서도 可能な 限 協力을 다할 생각으로 이미 關聯各界에서 計劃中인 곳도 있습니다만, 本委員會로서는 서울올림픽의 關聯事業등에 協力가능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兩側 事務局을 중심으로 本件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構成하여 그 具體案을 檢討하면 어떻까라고 생각하여 이에 提案하겠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 對한 協力(答辯)

韓 日 經 濟 協 會
常 勤 副 會 長 周 永 爽

잘 아시다시피 今年에는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開催되고 ‘88 年에는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韓國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歷史的意義는 再言을 必要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日本이 1964 年에 열렸던 올림픽을 契機로 産業構造가 보다 鞏固히 되었고 올림픽을 통해서 社會構造라든가 國民의 意識構造의 轉換등 오늘의 日本을 이룩하는 根據가 되었다는 것은 疑心할餘地가 없습니다. 그래서 韓國이 懇曲히 바라고 있는 올림픽을 통한 다음段階의 跳躍所望을 가장 잘 理解해 줄수 있는 것은 日本이라는 點에서 日本政府가 이미 ‘88 서울올림픽이 成功할 수 있도록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約束한터에 이제 民間經濟團體가 다시 같은 뜻을 表明해 주신것을 매우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具體的인 事項은 提案內容에도 있듯이 兩事務局에서 研究하여 좋은 結實을 가져오도록 最善을 다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분들의 좋은 意見이 必要함으로 많은 協力を 付託하는 바입니다.

共 同 聲 明

第 18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6 年 4 月 9 日부터 11 日 까지 日本國 東京에서 開催되었으며,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4 名, 日本側에서는 杉浦敏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82 名の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이번 會議는 日韓經濟協會가 設立 25 周年을 契機로 새로운 任員體制下에서 社團法人化를 實現한 뒤 처음 맞는 合同會議라는 點에서 韓國側으로부터 祝賀의 뜻이 表明되었고 日本側은 이에 對해 謝意를 表明하였다. 會議는 始終 友好的인 雰圍氣속에서 進行되어 內實있는 成果를 거두었다.

于先 兩側은 國際經濟環境이 急激히 變化하고 있고 韓國經濟의 加一層의 飛躍과 日本經濟의 一層의 國際化가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國交正常化로부터 20 年이 지난 오늘날 韓日經濟關係도 새로운 展開를 向한 轉機를 맞고 있다는데 認識을 새로이 하였다.

이와같은 共通認識위에서 來年부터 시작되는 韓國의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의 重點施策에 맞춰 가면서 投資 및 技術協力の 促進, 貿易의 擴大均衡, 相互信賴關係의 強化를 위한 人的交流 등을 建設의이고도 前向의으로 推進시켜 나가는 것이 兩國經濟의 發展을 위해서 重要하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아시아・太平洋時代의 到來에 크게 貢獻하게 될 것이라는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이에 따라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調查團의 對韓派遣, 訪

日投資誘致團의 派遣, 部品開發協力團의 交流,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 靑少年交流, 서울올림픽에 對한 協力等を 實施하는데 原則적으로 合意하였다.

1. 兩側團長의 人事에 이어 兩側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日本側은 다른 나라들의 繁榮없이는 日本의 繁榮도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의 國際情勢下에서 日本經濟는 積極的인 産業調整을 推進하여 國際協調型의 産業構造로 轉換시켜나가야 한다고 指摘하고 그러한 變化가 韓日經濟關係를 더욱 다이나믹한 것으로 만들며, 兩國間의 水平分業을 加速化시켜 보다 바람직한 競爭的協調關係를 만들게 되리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韓國側은 現在 外資導入規制의 緩和, 輸入의 自由化, 市場의 開放등 劃期的인 開放措置를 推進하고 있으며, 日本이 從來의 ONE SET主義를 바꾸어 韓國과의 國際的인 水平分業을 積極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韓日兩國의 共同利益의 擴大와 發展에 寄與하리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2. 大韓民國政府當局으로부터 「自力成長위에서의 福祉社會建設」을 指向하여 1987年부터 實施되는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重點課題와 主要施策에 對한 說明이 있었고, 日本側은 韓國이 劃期的인 開放化 및 國際化를 推進하여 均衡이 잡힌 福祉社會의 實現을 指向하고 있는 것은 兩國經濟協力關係의 더한층의 發展을 위해 歡迎할만한 것이라고 評價하였다.

3. 下記 4個專門委員會合同會議의 報告가 있었는데 모두 異議

없이 採擇되었고, 各委員會의 活動이 한층 더 活潑化되고 있음을 兩側이 모두 評價하였다.

- (1) 第 13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合同會議(1986 年 2 月, 日本國・熱海)
- (2) 第 11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合同會議(1985 年 6 月, 韓國・雪嶽山)
- (3) 第 6 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合同會議(1985 年 11 月, 韓國・서울)
- (4) 第 4 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合同會議(1986 年 3 月, 韓國・서울)

4. 이제까지 韓日經濟協력이 韓國의 5 個年計劃의 重點課題에 맞춰서 推進되어온 點에 비추어 日本側은 兩國經濟協力の 實效를 거두기 위해 來年부터 實施되는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 對한 調查團을 派遣할 것을 提案하였고, 韓國側은 同計劃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韓日經濟協력이 不可缺하다 하여 同調查團에 對한 協力を 아끼지 않을 것임을 約束하였다.

5. 第 17 回 合同會議에서의 合意에 따라 訪韓國投資環境調查團의 派遣이 1986 年 1 월에 實施되어, 韓國側의 官民一體의 協力에 힘입어 對韓投資를 더욱 擴大해 나가는데 多大한 成果가 있었는데 對하여 日本側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한편 韓國側은 1986 年 4 월에 東京, 浜松, 廣島, 福岡에서 開催되는 韓國의 外國人投資環境說明會가 成功裡에 끝날수 있도록

關係機關의 協力을 要請하였고, 日本側은 可能한 限 協力할 것임을 約束하였다.

6. 兩側은 部品開發協力및 선의의 交流가 韓國에서 急先務로 꼽히고 있는 部品産業의 發展을 促進하고 아울러 兩國間의 水平分業을 加一層 進展시키는데 있어서 極히 重要하다는 點에 對해 認識을 같이 하고 于先 日本側은 今年 가을을 目標로 韓國의 部品産業의 實態를 直接 把握하기 위한 調査團의 派遣을 提案하였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全的으로 同意하고 같은 類의 調査團을 日本國에 派遣하겠다고 表明하였다.
- 兩側은 앞으로 相互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을 約束하였다.

7. 兩側에 設置되어 있는 技術協力斡旋窓口に 關해서는 그 成果를 올리기 위해 보다 效果的인 方法과 內容을 再檢討하여 그 活性化를 꾀할 것에 合意하였다.

8. 兩國政府間의 合意에 依해 1984年11月부터 3次에 걸쳐 實施되어온 韓國技能工의 日本에서의 研修가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데 對해 韓國側은 受容企業 및 關係機關에 깊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實績에 비추어 韓國側은 '86年度에는 보다 많은 技能工派遣의 實現을 要請한데 對해 日本側은 民間으로서 可能한 限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約束하였다.

그리고 研修成果를 더욱 提高시키기 위해 兩側이 協力하여 諸般問題의 改善에 힘쓰기로 合意하였다.

9. 韓日・日韓 兩市場協議會를 窓口로 하여 1985 年에 4 回에 걸쳐 派遣된 訪日輸出促進團이 큰 成果를 올린데 對하여, 韓國側으로부터 謝意가 表明되었다. 韓國側은 關係機關의 더한층의 協力을 要請하였고, 日本側은 1986 年에 5 回 同輸出促進團을 받아들여 積極 協力키로 하였다.
10. 韓國側은 昨年 여름 韓日・日韓國交正常化 20 周年 記念事業으로서 實施되었던 韓國大學生들의 訪日이 兩國關係의 將來를 넓어질 靑少年들의 相互理解와 友好・親善을 深化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成果를 거둔데 對해 謝意를 表明하였다. 이에 따라 兩側은 向後 靑少年 相互交流를 더욱 活性化시켜 나가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1. 1964 年の 東京올림픽의 成功이 그 後の 日本經濟의 힘찬 發展을 가져온 原動力이 된 經驗에 비추어 1988 年の 서울올림픽의 成功이 90 年代의 韓國經濟의 飛躍的인 發展을 促進시킬 것을 期待하여 兩側은 서울올림픽을 成功으로 이끌기 위해 民間레벨에서 協力하는 方案을 檢討하기 위한 PROJECT TEAM을 兩事務局에 設置할 것에 合意하였다.
12. 다음 會議는 來年 봄 韓國에서 開催할것에 合意하였다.

1986 年 4 月 11 日

韓國代表團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團長 杉 浦 敏 介

韓國側 團長 閉會辭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朴泰俊

지난 9일부터 3日間に 걸쳐 韓日兩國의 經濟界를 代表하는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眞摯하고도 熱意에 찬 寡團氣속에서 서로의 關心事를 놓고 隔意없는 協議를 거듭한 끝에 오늘 뜻있고 알찬 內容의 共同聲明을 發表하고 第18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本合同會議가 훌륭한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모든 誠意를 아끼지 않으신 兩側代表團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이번 會議는 이것으로 幕을 내립니다만 우리가 서로 合意하고 採擇한 共同聲明의 內容이 雙方의 꾸준한 努力과 協調를 通해 훌륭히 結實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會議에서는 例年처럼 兩國間의 懸案問題 즉 經濟協力, 産業協力, 貿易增進등에 關해 서로의 立場을 充分히 開陳하고 意見의 接近을 꾀한 以外에도, 昨年부터 시작된 靑少年交流의 活性化에 合意를 보게된 것은 韓日新時代에 걸맞는 크나큰 成果의 하나었다고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今年가을에 開催되는 아시아競技大會와 1988年의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위해 우리 韓國이 全力投球하고 있는데 對해 日本側이 積極的으로 이를 돕기 위한 決意를 表明해 주신 것은 兩

國間の 友好協力이 말뿐이 아닌 實質的이고도 高次元인데 까지 이르고 있음을 如實히 證明하는 바로서, 21 世紀의 아시아・太平洋時代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韓日兩國의 앞날을 밝게 비취 수 있는 좋은 燈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日本側代表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開會式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協力關係는 이제 보다 實質的이고 보다 未來指向的인 것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믿고 있으며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는 자못 自明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 眼目으로 서로의 發展과 繁榮의 根源이 되는 相互理解와 友好親善을 더욱 두터이 하는데서 비롯된다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이 點 各專門委員會의 活動이 해를 거듭할수록 充實해지고 서로 問題들을 正確히 分析하고 把握해서 期於코 解決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意志가 發顯되고 있는데 對해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完璧한 事前準備와 빈틈없는 進行 솜씨로 이번 會議을 成功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韓國代表團을 親切히 맞아주신 杉浦團長을 비롯한 日本側代表團 및 事務局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來年에 韓國에서 다시 만날때까지 여러분 무디 健安하시고 하시는 일 꼭 成就하시기를 祈願하면서 惜別의 情을 나눌까 합니다.

日本の皆様、本當に有難うございました。さようなら。

1986 年 4 月 11 日

日本側 團長 閉會辭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杉浦敏介

閉會에 즈음하여 한마디 人事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李奎浩駐日大使閣下와 朴泰俊團長, 顧問여러분, 그리고 團員여러분께서는 多忙하신 가운데도 이처럼 많이 參席하시어 3日間에 걸쳐 兩國經濟關係의 더한층의 緊密化와 發展을 위해 熱心히 討議를 거듭해 주신데 對하여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開會式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日韓新時代」의 到來와 韓國經濟의 힘찬 發展에 의해 兩國經濟關係는 오늘날 새로운 展開를 向한 轉機를 맞고 있으며 이번 第18回合同會議에서는 아시아・太平洋時代に 걸맞는 兩國關係를 構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經濟協力の 存在方式에 關해서 討議를 해주셨는바 이를 위해 大端히 內實있는 論議가 거듭되어 큰 前進이 있었음을 同慶해 마지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日韓經濟協會는 지난 1월에 社團法人化를 實現시켰습니다만 앞으로 早速히 體制를 強化하여 韓日經濟協會와 손을 마주잡고 이번 合同會議의 成果에 立脚해서 兩國의 共存共榮을 위해 努力할 생각이므로 여러분께서는 倍前의 協力を 하여주시기를 付託드리는바입니다.

그리고 朴泰俊會長님을 비롯한 韓日經濟協會事務局 여러분께서는 이번 第18回合同會議를 成功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協力を 해주신데 對하여 새삼 感謝드립니다.

끝으로 來年 第19回合同會議席上에서 다시 만나 될때에는 韓日
經濟關係가 더욱 前進되어 있을것을 期待하며, 또한 兩國團員 여러
분의 더한층의 發展과 健勝을 祈願하면서 閉會人事를 마치고겠습니다.
感謝합니다.